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해님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으로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며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2월 25일 (토) 제 162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타성에 젖은 ‘사순절’ 이젠 그만!”

3월 1일-4월 13일... 종교개혁자들의 시각으로 바로 잡기 시도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3월 1일-4월 13일)의 기간을 말하며,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고난, 부활 등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를 따르는 제자의 도를 훈련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교회공동체는 그동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처럼 화려한 기념행사에는 열과 성을 바쳐왔지만, 사순절과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묵상과 침묵을 통해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데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교회가 겸손함보다는 화려함을 선호하고 침묵과 명상보다는 찬양과 행사에 열정을 쏟음으로 영적인 깊이가 많이 얕아지지 않았느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단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경건의 능력이 아닌 모양”만을 흉내 내는 중세 카톨릭교회의 사순절 관행을 엄격하게 비판했다.



사순절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고난, 부활 등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먼저 “종교개혁 500주년”의 주인공 마르틴 루터의 비판을 들어보자. 그는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라는 표어로 교리적 차원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sacrament)과 종교적 전통과 같은 교리 외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유연하고 우호적이고 관대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특히 루터는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가 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사순절의 존폐여부에 관해 루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主日)’ 이외의 어떠한 교회력 절기도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했다.

스위스 취리히(Zurich)의 가톨릭 사제였던 울리히 츠빙글리는 사순절은 교회전통의 산물이므로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사순절 규정의 준수 여부는 자연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준수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여타의 관행은 그림자와 상징물에 불과하므로, 예전을 거행하는데 있어서 신자 나름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융통성 있고 자유롭게 실시함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타성에 젖은 금식 관행을 비판했다. 따라서 ‘채의 수요일(Ash Wednesday)’로 시작하는 사순절에만 참회를 하고 금식을 준수하고, 성찬을 하기만 하면 일 년 내내 범사가 낙관적일 것이라는 카톨릭교회의 고정관념을 비판했다.

종교개혁을 마무리 지은 프랑스 출신의 스위스 제네바의 신학자인 존 칼빈은 사순

절의 금육과 절제생활이 인간의 업적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례적인 사순절 금육 관행을 비판하고 부정했다.

유의할 것은 칼뱅은 금육자체를 금기시한 것이 아니라, 중세교회 당시의 미신적 차원의 사순절 40일 금육 관행을 비판했다는 사실이다. 그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主日)’ 이외의 어떠한 교회력 절기도 부정했다.

결국 유럽에서 사순절의 왜곡된 관행 때문에 생겨난 사생아가 바로 사육제(carnival)라는 사실은, 왜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을 전면 비판했던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다시 말해서, 사순절이 종교개혁

자의 비판과 비난의 과녁과 표적이 된 원인은 내용 없고 실속 없는 껍데기뿐인 절기 준수 타성 때문이었다. 마음과 정성이 동반되지 않은 타성에 젖은 종교 관행을 비판한 것이다.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실제 삶에서 적용을 고뇌하는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여정 가운데 마지막 40일을 함께 보내는 심정으로 크리스천들은 사순절을 지낸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으면서 진정한 생명을 얻은 축복의 의미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

〈3면으로 계속〉

백인우월주의 되살리기 ‘대안 우파’ 경계

폴리티코 보도...트럼프행정부 실질적 브레인 스티븐 배년의 등장과 함께 부상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보수 우파 매체 브레이크바트 창업자 스티븐 배년의 백악관 수석 고문 임명을 계기로 미국 내 이른바 ‘대안 우파(alt-right)’의 정체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미 정가 안팎에서는 브레이크바트를 ‘대안 우파’ 이념의 연론 창구, 배년을 ‘대안 우파’와 밀착된 인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전문 ‘폴리티코(Politico)’는 배년의 등장과 함께 미국 정치의 절대강자로 들어선 ‘대안 우파’가 무엇인지를 보도했다(The man behind Trump? Still Steve Bannon).

‘대안 우파’란 ‘대안적 우파(Alternative right)’란 표현의 줄인 말이다. 주류 보수 또는 주류 우파와 달리 유럽혈통 백인과 문화 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평등주의와 다문화주의, 정치적 올바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백인 우월주의를 되살리는 것을

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리처드 스펜서란 인물이다. 1978년생으로 올해 나이 38세인 그는 버지니아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대학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듀크대에서 저널리즘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7년 ‘미국 보수주의자(The American Conservative)’ 지의 부편

주류 보수, 주류 우파와 달리 유럽혈통 백인과 문화우월주의 주장 “평등주의, 다문화주의, 정치적 올바름 등으로 백인 ‘피해’ 입었다”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슬람과 페미니즘, 동성애를 배척하고 반유대주의를 주장한다.

미국에서 ‘대안 우파’란 개념이 제기되기는 2008년부터다. 보수 우파 철학자 폴 고트프리트는 당시 한 연설에서 미국에 “대안적 우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대안 우파’는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특정 단체나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념에 공감하는 개인과 여러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계돼있는 형태다.

하지만 외부로 드러난 인물과 조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내셔널 폴리스 인스티튜트’란 싱크

잡지를 거쳐 2010년 직접 ‘대안적 우파’란 이름의 웹진을 창간했다.

‘대안적 우파’는 ‘흑인 인종학살은 옳은가’란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흑인은 문명에 거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 흑인 인종학살을 고려해 불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란 주장을 펼쳐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런가하면 스펜서는 지난 2014년 “백인 미국인들에게 이민은 대리전이 자 최후의 저항이다. 극적인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들(백인 미국인)의 손자손녀들은 생경하고도 적대적인 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5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운석 목사

8면



살롬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14면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기억하라!”

리더십저널, 앨런 록스버그 목사의 격변하는 과도기 혼란을 안정으로 바꾸는 법 소개

과거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던 교회는 오늘날 그 권세를 잃었다. 이 시대에서 절대적인 가치와 전통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 상상가상으로, 교회는 자아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영적 푸드 코트로 전락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제대로 대처할 만한 힘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앨런 록스버그(Alan Roxburgh)는 “미셔널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독교’에서 탈피해,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우리 안에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록스버그 목사는 27년 이상 교회의 리더이자 신학교 교수로 섬겨왔으며 리더십 개발과 국내 선교학 분야를 가르쳐왔다. 캐나다에 위치한 앨런의 부회장과 앨런 미셔널 리더십 네트워크(AMLN)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미국과 유럽, 호주에서 사역하는 리더들과 지역 교회들, 훈련학교들 가운데서 미셔널 운동을 조성하고 있는 여러 관계들과 자원들의 네트워크다.

현재 교회공동체는 과도기에 서 있다. 과도기는 그 전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기 전, 모호한 시기다. 더 이상 이전시대의 방법들이 작동하지 않으며 새로운 방법들은 시도되지만 할 뿐 효과를 보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밀이닥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리더에게 대안을 요구한다. 하지만 전 시대의 방법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리더이든, 새로운 시대의 방법을 계속 시도해보는 젊은 리더이든, 명확한 대안을 주지 못한다. 기존의 방법이 왜 작동되지 않는지 의아해 하며,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때론 사람을 바꾸어 보기도 한다.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여러 실험적 방법들을 과감히 받아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어 보인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합



전 시대 리더와 새 시대 리더 간 대화 필요...과도기 함께 살아가는 것 절감 기독교 가치의 근본과 전통 필요...하나의 중심축 두고 새 시대 향해 한발씩

니까?” 하고 질문하지만, 과도기는 답을 제시할 지도자가 없는 시대다. 큰 기회이자 유혹의 때다. 모두가 각자의 방법으로 대처한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답을 제시하는 공동체로 여겨져 왔기에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은 큰 혼란으로 여겨진다. 교회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리더들과 구성원들은 심리적 위협을 느낀다. 심리적 위협은 위축된 태도로 나타나고, 부정적 반응을 끌어낸다.

교회가 점차 외부 사회나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쏟아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구조의 틀이 변화할 때, 산업기술이 큰 변혁을 일으켰을 때 일반사회에서 종종 관찰되던 현상이다. 온 사회의 문화적 균열이 매우 심하다. 지도도 표지판도 없이 살아가는 현실은 굉장히 파괴적일 정도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전 시대의 리더와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대화하는 것이다. 전 시대의 방법이 옳다는 혼계는 전 시대의 사고이며, 새 시대의 방법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오만은 현실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신기루와 같다. 두 시대의 리더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전 시대도 아니며 새 시대도 아닌, 둘이 공존하는 ‘과도기’라는 시대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대립적인 입장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양극단의 상황을 조장하는 흐름에 경고를 울려야 한다. 미국 교회의 위기, 붕괴라는 신호는 사실 온 사회와 세계가 울리고 있는 거대한 경종의 일부다. 이는 국지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문제이며, 이 혼란에서 오는 두려움과 분노는 우리 깊은 곳을 찌른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시대이며, 모두가 겪는 문제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 시대의 사람들을 지나간 시대의 유물 취급하며 폐기하려거나, 내가 아는 세계를 파괴하려 드는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소모적 싸움이 그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리더에게 살아가라 하신 곳

은, 괴롭지만 지금 이때와 이 장소다. 이전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움직임 모두 상황 통제력과 안정감을 회복하려는 시도임을 알아야 한다. 같은 목적을 가진 행동임을 인식하며, 위기를 벗어나려는 시도임을 공감해야 한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힘이 서로의 꼬리에 붙어 반대로 끌면 결국 찢어지게 되지만, 하나의 통일된 프로펠러에 붙어 위아래 수직위차를 두고 반대로 진행하면 큰 추진력이 된다.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기억해야 한다. 오른쪽으로 가던 날개가 어느덧 왼쪽으로 가게 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계속 페달을 밟으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모범적인 선교단체 중 하나인 OMF에서는 선교지에 나가는 신임 선교사가 1년 동안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자전거를 사용해야 하는 선교 정책이 있다. 그래서 나의 친구 선교사는 오래 전 태국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십여 40도가 넘는 온도와 90% 이상의 습도에서 열 번만 페달을 밟아도 온 몸이 사위를 하는 것처럼 폭삭 젖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선교사역의 값비싼 원리를 하나 발견했다고 한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면 죽는다. 멈췄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은 엄청 힘들다. 그러므로 가끔 속도를 줄여서 갑자기라도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선교사역이 그렇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중단하지 않고 다만 정말 힘들 때는 천천히 달렸더니 20

년 선을 지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교편지에 썼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왔는지 잘 알고 있기에 그가 한 말이 더욱 실감이 났다. 나 역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종종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며 동시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사역의 페달을 밟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감사하다.

지금 한국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 하고, 20%를 넘으면 후기고령 사회 혹은 초고령 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3.2%(657만 명)로 고령화 사회를 훨씬 넘어 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의 통계청에서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층이 14세 이하 유소년층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고령층의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많은 노력 가운데서도 출산률은 계속 떨어진다. 인구는 줄고 사회는 늙어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한국인에게 기독교의 위신이 지금처럼 추락한 적이 없다. 각종 비리와 스캔들에 목사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관여되지 않은 사건이 없을 정도로 추문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기독교란 사회의 타락에 일조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목회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고개를 돌려 미국에서의 목회 환경을 생각하면 훨씬 더 답답해진다. 한국에 있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다 있다. 세상에 호락호락한 목회란 없지만 지금까지도 이민 목회는 더 없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재건주의로 보수 우익의 노선을 취하는 것이 교회 상황에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민의 문호를 꼭꼭 걸어 잠그고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몰아내겠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절대수가 적어질 것이 자명해졌다. 특별히 신분이 불안정한 교인이 많은 아시아권을 비롯한 소수계의 교회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다. 지금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신분의 문제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므로 기존의 목회 전략만을 고수하려다가는 낭패를 볼 여지가 많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조차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는 목회 지망생이었으나 화가가 되어 그림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컸다. 그는 많은 그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을 밝은 노란색으로 표현하였다. 그가 30점이나 그렸다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은 공관 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를 그린 것이다. 그 그림에는 네 가지 밭이 다 나온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런 밭들과 함께 열매를 맺는 옥도밭이 있다. 농부의 뒤에는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 물론 그 태양과 함께

농부의 뒤는 강렬한 노란 색으로 뒤덮여 있다. 농부는 태양을 등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얼굴은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표정이다. 씨는 흩뿌려져 여러 밭에 떨어지는데 많은 씨가 엉뚱한 곳에 뿌려지지만 그 중에 더러는 옥도에도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 고흐가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뿌리기를 멈추지 말자는 것이다. 언젠가는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말자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 그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목회 사역은 어떤 영역보다 인내가 요구된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과 어두운 미래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나중에 더 어려운 시기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자전거를 계속 달리는 선교사처럼 계속 뿌리고 계속 페달을 밟으라!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타성에 젖은 ‘사순절’ 이젠 그만!”

(1면에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회개할 시작하는 날로 정해 회개의 상징이 되는 “재(ash)”를 머리에 쓰고, 자루 옷을 입고 다녔으며, 이러한 전통은 9세기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이 됐던 것이 초대교회부터 지켜온 사순절이라는 교회력의 근본적인 의미였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사순절 기간에만 잠정적으로 절제와 경건을 추구하는 자세를 종교 개혁자들은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사순절은 한마디로, 십자가 중심의 기독교 즉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바로 “내가 너를 위해 몸 버려 죽어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막스 루케이도 목사는 핏빛 선연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갈보리언덕에 서 보라. 십자가의 나뭇결을 손가락으로 매만져 보고 못 끝으로 당신의 손목을 지그시 눌러 보라. 그분의 아픔에 귀 기울여 보라. 군병들이 뺨은 침이 주님의 옷에 뿜다. 가시의 뾰족한 끝이 그분의 머리를 찌른다. 대못이 손목을 뚫고 들어간다. ‘광, 광, 광’ 병사의 창이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간다. 물과 피가 쏟아진다. ‘아, 주님!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그때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이다. ‘그래, 너를 위해, 너의 마음을 얻으려 한 일이다.’”

결론으로, 2017년 사순절에는 좀 더 천천히, 깊이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동반자의 훈련이 필

요하다. 갯세마네동산에서 예수가 혼자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할 제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다. 피곤해서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동행하지 않으려는 내적인 시험이 그들을 지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다. 사순절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십자가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에서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발생한다.

사순절 즉 40일 동안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인생에 적용해야만 한다. 경건과 절제, 회생과 나눔, 성찰과 회복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동반자로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의미 회복은 공동체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편집부)

백인우월주의 되살리기 ‘대안 우파’ 경계

(1면에서 계속)

‘대안 우파’는 자유주의자 및 민주당으로부터 인종차별주의로 비판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통적 보수파로부터도 공격 받고 있다.

트럼프는 ‘대안 우파’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는 CNN과 최근 인터뷰에서 “그게 뭔지 아무도 모른다”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앞서 배넌이 트럼프 선대위 최고책임자로 기용됐을 당시 “브레이트바트와 트럼프 유세의 실질적 결합은 이 단체(대안 우파)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의미한다”며 “비주류가 실질적으로 공화당을 접수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결국 브레이트바트뉴스 출신의 배넌은 트럼프 취임 후 불과 열흘 만에 백악관 내 권력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레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도 배넌의 그림자에 가려졌을 정도로, 트럼프 정부의 초기 방향을 잡아가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또 다른 대통령 자문 스티븐 밀러와 함께 트럼프 부상 전부터 이번 정부의 정치적, 이념적 틀을 잡았다.

브레이트바트뉴스는 공화당 주류가 이민, 무역 등의 사안에서 미국 노동자를 배신했다는 프레임을 전파해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깔았다. 이들은 또

한 정부 출범 첫 주에 대통령이 어떤 문서에 언제 서명할지 로드맵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바마케어 약화, 이민 규제강화, 연방정부 고용중단, 그리고 다수 무슬림 국가 출신 입국금지까지 모두 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결국 트럼프의 백악관 임성이 온라인에서만 숨어 지내던 ‘대안 우파(alt-right)’들을 현실 세계로 끌어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진단한다(White Nationalists Celebrate ‘an Awakening’ After Donald Trump’s Victory).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대안 우파’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이제 인터넷 공간을 벗

어나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과업을 일으킬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안 우파’와의 관계를 부인하면서도, 배넌에 대한 신임은 엄중하다. 아무런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배넌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일원으로 임명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 당시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리며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칼 로브 전 고문은 부시 대통령의 저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고문을 지냈던 데이비드 액셀로드 역시 가끔 상황실에서 회의를 참관했지만, 입장을 거부당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동지인 뉴트 킹 그리치 하원의장은 정치 고문이 국가 안보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예를 찾아내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킹그리치는 “대통령이 배넌의 직관과 판단력을 신뢰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계획”이라며, 배넌이 해군 장교를 지낸 경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해군 장교 경력을 지닌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의견은 다르다. 매케인은 정치 자문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일원으로 삼고 합참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기억하라!”

(2면에서 계속)

왼쪽으로 가던 날개는 어느덧 다시 오른 쪽으로 가게 된다. 하나의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서로 다른 행동을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다. 먼저 과거에 배웠던 습관, 가치 패턴을 버리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시 한 번 기독교 가치의 근본적인 이야기와

전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방향감에서, 하나의 중심축을 두고 새 시대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안정감으로 변화하게 된다.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불연속적이었던 변화를 미리 통제 가능한 연속적 변화로 만드는 노력이 불투명성을 상당 부분 제거해줄 것이다.

결국 새 시대가 주는 불안함에 빠져 있는 공동체에, 통제된 상황에서 서로에게 번갈아가며 기회가 주어짐을 인식시켜야 한다. 서로를 반대에서 있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한 공동체에 거대한 추진력을 가져다줄 서로 다른 방향의 힘으로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며, 지금 이 시대, 과도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해야만 한다.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전도, 앞장서다(중)

주일 낮 설교는 초신자들을 겨냥한 전도설교로 구성했고, 주일 저녁 설교는 전도의 이론과 실재를 아우르는 훈련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은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어 전도의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고리를 찾는 데 힘을 쏟았다. 결과는 좋았다. 매년 교인 수가 불어나고 교회 분위기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빛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외선교사 파송을 시작했고 미자립교회를 돕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해 지역별로 교회를 개척했다. 그야말로 전도운동이 교회 회복의 원시력 노릇을 푼듯 해낸 것이다.

전도운동의 결정타는 ‘총동원 전도’ 행사였다. 충신교회보다 앞서 이 운동을 실행한 교회가 두어 군데 있었지만 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실천한 것은 충신교회가 처음이었다.

6개월 전 당회가 결의하고 곧바로 교회의 모든 방향과 역량을 총동원 전도에 집중시켰다. 총동원 전도의 명칭은 ‘예수초청근잔치’로 정하고 총동원 목표는 3만 명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날 결산자 목표는 7천 명으로 정했다. 교인 개개인이 초청할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게 했고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게 했다. 교회 안에는 예수초청근잔치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했다. 매주 상황을 알리고 전도전략을 홍보하는 주간신문을 만들어 배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했다. 잔치 한 주간 전까지 보고된 초청 대상자 수는 3만여 명이었고 당일 3만5천 명이 모여들었다. 예배는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 시간 반 간격으로 진행했다. 무려 열두 차례나 계속된 설교로 최장 기록을 세웠다. 시간마다 결신의 시간을 갖고 등록카드에 이름을 적어 내게 했다.

놀라운 것은 기도대로 7천 명이 결신카드를 제출한 것이다. 그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했다. 하나는 충신교회에 나올 것, 둘은 지리적 여건, 거리, 가정 형편 등 충신교회에 나올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은 집 근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로 나가도록 권유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내로라하는 점술가, 무당, 불교 승려 등이 초청예배에 출석한 점이다. 그들 중 점치는 여인

은 계속 교회에 출석하기도 했다.

총동원 전도운동의 장점은 교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힘을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준비가 부족하면 결과도 부실하다는 것과 결산자의 사후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요되는 경비도 만만치 않다. 그날 참석한 3만5천 명을 위한 선물, 전도 대상자를 작성한 사람들을 위한 포상, 6개월 준비기간, 인쇄물, 통신비 등 특별예산이 아니면 조달과 집행이 쉽지 않다.

충신교회도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일을 꼭 해야 하는가? 전도는 조용하게 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적중하지 않는가? 특히 동부이촌동 아파트 문화에 접근하는 방법치곤 유지하지 않은가? 엄청난 예산을 이 일로 소진해도 되는가?’ 등 예산 집행상의 탄지를 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것은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행위를 트집 잡았던 그 사람의 맑은골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교인이 있었다. “3억이면 떨어지고 6억이면 당선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6억이 아깝겠습니까?”라는 강변이 지금도 생생하다.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가로막지 않는다. 오늘도 현금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현금 행위나 섬김을 타박하지 않는다. 언제나 말쑥은 안 하는 쪽에서 벌어진다.

예수초청근잔치 이후 교회 분위기도 변했고 영적 수준도 업그레이드되었고, 주일출석도 예배 횟수를 늘여야 할 정도로 늘어났다. 결과는 대만족이었고, 그후 각지에서 총동원 전도를 준비하는 교회들의 내방이 줄을 잇게 되었다.

필자는 그날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열한 번 예배인도와 설교를 했다. 목양실에는 주치의가 대기하고 있었고 식사는 물 한잔, 김밥 한 개, 주스 한 컵, 카스테라 한쪽으로 대신했다. 저녁 9-10시는 감사예배는 드림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날 아버지 하나님은 종에게 무쇠 같은 건강을 주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쁨 부어 주셨다.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다.

iamcspark@hanmail.net



목회서신

영적 내공을 키워라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컴퓨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기계이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보이는 기계보다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 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속

사람은 팽개쳐버리고 겉 사람만 자꾸 포장하게 되면 결국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만들어지면 겉 사람도 그 수준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드웨어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힘은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과 3년을 예

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영성 즉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영적 내공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직분이나 이력이나 관록을 중요시 여기는지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의 믿음은 없으면서 바나바의 명예만 추구했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의 땅을 팔아 구제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자 그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그만 그 명예를 얻려고 흉내 내다가 하루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속이고 죽음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발람 선지자는 물질 때문에, 삼손은 정욕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소프트웨어 즉 영적 내공을 강화하는데 실패했기에 영원한 실패자로 오명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앗수르 18만5천의 군대를 물리친 히스기야의 힘은 소프트웨어인 신앙의 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주전9세기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왕과 이세벨을 대항하여 갈멜산 영전에서 기도로 하늘의 불이 임하게 했

던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이스라엘은 승리와 영광을 되찾고 그의 기도로 3년6개월 동안 단헛던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장마 비가 쏟아지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성령으로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겉 사람을 이김으로 신앙의 승리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영원토록 존귀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의 영웅 조지 워싱턴대통령은 말씀묵상과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아침과 저녁 두 번씩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의 군대가 곤경에 처해있었던 벨리포지에서 그 마을 농민들은 워싱턴이 이길 것을 믿었다고 하

니다. 왜냐하면 그 추위와 식량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앉아있는 워싱턴의 모습을 그들은 날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지도자를 보는 백성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내공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다가올 대 부흥의 주역으로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힘이 바로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힘, 기도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푸/른/초/장

조선욱 목사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



사상은 인류 문화를 이끌어옵니다. 또한 인류문화가 그 사회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적 세계가 외적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면적 변화보다 외면적 변화를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 만큼하고,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교회를 얼마만큼 오래 다녔느냐의 외적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니 보이지 않는 내면적 변화에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외적 변화가 사람의 본 모습을 바꿀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의 본 모습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기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에 이렇게 말씀합니까? 6-7절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정 말 종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이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종하셨기에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함으로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죽지 않으려 합니다. 순종은 아주 연약하고 무력하고 힘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죽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것은 주님의 겸손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겸손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교만이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신앙이 최고다 자부심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큰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도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하기에 헌신과 섬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받을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으면 천사도 사탄이 되고 맙니다. 겸손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인간극장에 27년을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5면으로 계속)

예수님의 겸손을 품고 사는 신앙

(빌립보서 2장 5-9절)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자신이 교만함을 모르는 산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삼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전적으로 자기중심적 신앙생활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안에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웠는데 그 모습이 종의 모습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종의 모습이라 말한 것을 자신의 의지는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어디에까지 보이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늘에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

종하셨기에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함으로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죽지 않으려 합니다. 순종은 아주 연약하고 무력하고 힘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죽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것은 주님의 겸손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겸손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교만이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신앙이 최고다 자부심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큰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도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하기에 헌신과 섬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받을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으면 천사도 사탄이 되고 맙니다. 겸손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인간극장에 27년을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5면으로 계속)

종하셨기에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함으로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죽지 않으려 합니다. 순종은 아주 연약하고 무력하고 힘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죽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것은 주님의 겸손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겸손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교만이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신앙이 최고다 자부심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큰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도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하기에 헌신과 섬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받을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으면 천사도 사탄이 되고 맙니다. 겸손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인간극장에 27년을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5면으로 계속)

최근 한국을 다녀오신 분의 말이다. 한국에서는 싱글, 즉 혼자서 한다는 의미의 혼술 혼밥, 혼자 술을 먹고 혼자 밥을 먹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명 '홀로족'이 유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식당의 자리배치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한다. 밥 먹는 자리가 벽을 바라보고 양쪽에 벽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는 차단되고 벽에 걸린 자기만의 스크린에 몰두하며 혼자서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잠자고 생활하는 곳도 마찬가지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나 각각의 방들이 연결된 하숙집 풍경은 사라지고, 한 공간에 혼자 사는 스튜디오가 인기를 누린다고 한다. 그곳에서 인터넷 강국, 배달의 민족(?)답게 전화기 하나로 모든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면서 인생의 홀로 재미를 누리며 산다고 한다.

손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 인격과 인격의 교류가 없어도 자신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은 언제라도 취할 수 있다는 발달된 개인정보화 시대에 인간 자신은 신이 세운 아름다운 교제의 질서마저도 역행하며 자기 재미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홀로 취하는 정보력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신념은 정보의 왜곡과 편향성을 쉽게 이끌어 온다. 거기에 덧붙여져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고, 독자는 스스로 정당한 관점을 형성할 여지도 없이 선전광고물처럼 덮쳐오는 정보의 내용들 앞에 무작정 헌신하게 됨을 본다. 오늘날 한국의 극한 좌우갈등의 이면에도 이러한 자기 정보의 지나친 확실성에 기인한 면이 크다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언론, 내 생각을 교정할 수 없게 하는 내 생각대로 말해주는 언론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본다. 게다가 이

기성세대가 된 우리 세대에도 젊을 때는 어떻게 하든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고 그 잔소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지방에서 하숙을 하던 친구의 하숙방 자유가 부러웠던 적도 있었다. 아버지의 무서움, 어머니의 잔소리, 어머니의 끝까지 자식에 대한 무한 애착, 이런 것들 때문에 감히 도전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려면 집을 나가야 하는데 나가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 가정 안에 붙들려 있었던 시간들이 복이었음을 알게 된다. 어린 시절 밥상에서의 예의, 어른 존경, 아버지의 잔소리, 가정교육, 어른이 수제 놓을 때 그 때 놓고... 그 분이 첫가락질 가지 않은 곳에 내가 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습관들이었는데, 이런 습관들이

는가? 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들과 모여 있게 되면 부끄러워서라도 죄를 짓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도록 지으셨다. 혼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리에 서고, 스스로 분리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된다. 결코 신앙의 긍정적인 역할이 될 수 없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

이러한 홀로족들의 삶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성인대우와 개척정신을 위한 실제적인 분리로서의 독립을 관습화하였는데, 우리는 이민자로서 상당조건이 불비한 가운데서도 모양만 흉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찬사 제자교회)



교회중심,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

-홀로족(族), 홀로신앙, 개인주의 신앙의 편협과 왜곡

홀로 정보 - 그 편협과 왜곡성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창조로부터 더불어 살아가도록 남과 여, 부부를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 가족과 사회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를 역기능 하여간다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이 된다. 말씀에 역린하여 가는 이상 결코 긍정적일 수는 없지 않겠나? 좀 더 나아가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 개인주의화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각자의 삶에 대한 인정과 반응이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한다. 아이들도 부모가 있는 동네에 살고 있지만 미국의 독립된 자녀 세대처럼 독립적인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기호를 위해 일부러 혼자 나와 사는 미혼 자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보지만 답을 찾기가 어렵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답게 전체 인구의 80%가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한다. 여기 저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카톡, 카톡하며 실재 없이 어울린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가장 손쉬운 소통의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충실하여 불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실수와 부족함을 관용하고 이해하며 함께 세워져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거늘, 너무나 익숙해진 개인 소통의 도구로 말미암아 자신과 타인의 생각의 교류보다는 더욱 강력한 자기 정보의 견고한 성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홀로 취하는 정보력의 한계

누구에게 물어서 알게 되는 걸

를 더욱 부채질하는 페이크(fake) 뉴스의 생산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로 나타난다. 아무리 좋은 풍부한 자료를 주어도 이를 해석할 기준과 해석자의 함량이 미달이라면 그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관계성의 유익을 파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 큰일이다. 아마도 그 다음에는 둘이 사는 게 불편해지고, 4-5명이 모여 산다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불편하게 느낄 것이다. 이런 혼자만의 삶에 익숙하다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 자녀생산에 대한 것도 지극히 자기편리를 위한 자기중심적이 됨을 볼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미루고, 직업도 일정하게 가지지 않고, 결혼을 하여도 자녀를 가지지 않거나 가져도 하나자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에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은 아예 귀찮게 여기는 것이다.

이미 결혼한 기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혼자 살면서 부부관계를 이어가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가장 손쉬운 소통의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충실하여 불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실수와 부족함을 관용하고 이해하며 함께 세워져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거늘, 너무나 익숙해진 개인 소통의 도구로 말미암아 자신과 타인의 생각의 교류보다는 더욱 강력한 자기 정보의 견고한 성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삶이 축복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꼭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물론,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 예의를 지켜갈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그제 몸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담임목사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중직이란 분이 먼저 음식에 손을 대고 입에 넣는 경우를 본다. 그러면 그도 그 자녀들에게도 뭘 가르쳤는지 훤히 보이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자유라는 이름 앞에 가정교육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홀로문화가 흥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보여주어도 보는 이가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홀로신앙- 죄 가운데 노출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죄들이 혼자 있을 때 행해짐을 본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무리에서 분리되어 나왔을 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할 때 마귀는 다가와 유혹과 불신의 씨앗을 뿌린 것을 보게 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에 죄에 더욱 노출됨을 본다. 마귀가 혼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다. 다행히 게으르게 혼자 있을 때, 전쟁에 불참을 하게 됐고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다.

더 나아가서,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혼자만의 문화가 강해질 때 과연 이 아이들이 미래 교회 공동체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다. 그런 아이들의 교회생활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운데 녹아지기도 쉽지 않고, 교회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

내어 자녀에게 분리와 독립을 선물(?)하는 나쁜 예들을 보게 된다. 그 결과 자녀들의 미래가 부모의 지도에서 벗어나 대단한 혼영을 치르는 가정들을 슬프게 보게 된다. 홀로족의 삶에 대해서는, 한국이던 미국이던 자녀들과 2세대를 바라볼 때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게 된다. 교회의 책임도 크다.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녹아져야 한다. 때로는 함께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을 지나기도 하고, 삶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겠지만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 배우고 습득해야 한다.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고 예배공동체 안에서 키워야 한다. 부모세대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교회, 함께 교제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좋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말세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떤 분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소천되었거나 천국에 갔으니 천국환송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죽은 성도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가는지요? 성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에서 이 집사

A: 이렇게 말하는 분은 육신과 영혼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영혼이 아니라 육체입니다(살전4:13). 육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땅에 묻혀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죽은 성도의 영혼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호와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는 영혼이 사후수면의 상태로 내려간다고 말하며 신체가 부활할 때까지 영혼이 무의식적 수면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은 육체적 죽음을 형벌이자 죄의 삯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죄책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신자들도 죽느냐? 질문이 제기됩니다. 분명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형벌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죄의 정죄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이란 고통스런 체험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칭의 받은 자기 백성을 성화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신학적으로 인생을 훈련하시

성도의 죽음은 성화를 완성해 천성에 들어가는 시작

는 훈련의 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딤후4:7-8). 죽음을 통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형벌의 의미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에게 형벌이 남아있다는 관념은 연옥 불의 캐톨릭 사상입니다. 한국의 조직신학자였던 박형용 박사는 성도의 죽음을 훈련과 정계의 정점으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화를 완성하여 천성에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직전에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고후5:1,8). 그러므로 성도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 후에는 몸을 떠나 하나님께 계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가족의 입장에서 예수 믿고 죽은 고인의 장례예배를 천국환송예배로 표현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천되었다는 것도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신)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옳은 고백하기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욘19:26)고 말했다고 사도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후5:8, 빌1:23)고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족한 교제에 들어감을 의미하며 거한다는 헬라어 "엔데 메오"는 외국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거함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자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므로 장자의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하늘의 총회(기쁨의 연회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은 신구약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천계의 승리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계7:9-10). 성도의 죽음은 "소천했다"가 아니라 "소천되었다"고 수동태로 말해야 어법상 맞습니다. 내 힘으로 소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소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면에서 계속)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아내와 아이와 함께 필리핀으로 떠나 거기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에 감동을 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선교하는 중간에 취직과 위암이 있었는데 그의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암이 다시 재발되어서 지금은 6개월밖에 살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의료선교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암치료를 받는데 그 중간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필리핀으로 가서 선교 병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의료선

교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죽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필리핀의 오지를 약통 들고 다니며 주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에 핵심은 그분의 일을 통해서 그의 삶에 축복이 있었더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위암 4기로 몇 개월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님처럼 그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봉사하며 사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임을 믿고 예수님의 운유와 겸손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였기

에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나타내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자신도 좀 변하고 싶지만 이 교만한 때문에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가진 것이 더 많고, 실력 더 있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변화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라즈반시(RAJBANSI)



라즈반 시족은 작은 산악 왕국 네 팔에 거주하는 110여개의 인종 그룹 가운데 하나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남으로는 인도와 북으로는 티베트 사이에 걸쳐 있다. 이곳은 거의 잊혀진 험한 지역으로 히말라야 산 기슭에 위치한다. 주민 대부분은 Jhapa 구역의 동쪽과 Morgang 구역 인접지역에 살고 있다.

라즈반시족은 "거친" 사람들로 묘사되고 왔는데, 그들은 보통 중간키에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언어는 라즈반시어로서 네팔의 공식 언어인 서벵갈 지역의 벵갈리어와 유사하다.

라즈반시족은 250여년전 네팔로 이주해 왔으며, 비록 그들 민족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인도의 코체(Koche)족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전설은 그들이 벵갈의 남부에서 이주해 왔으며, 비록 그들 민족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인도의 코체(Koche)족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전설은 그들이 벵갈의 남부에서 이주해 왔으며, 비록 그들 민족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인도의 코체(Koche)족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라즈반시족은 농부들로 자신의 노동력에 의존해 생존한다. 라즈반시족이 몇몇 가족을 기르지만 그 가족들을 주요 수입원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가족 제품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파는 품목으로 사용된다. 경작에 적합한 땅의 부족과 과도한 인구 그리고 빈약한 농사 방법 등 이러한 것들 모두가 심각한 수준의 식량 생산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직조(그들은 뛰어난 직조공이다)를 통해 돈을 벌기 시작했고,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또는 개인적 경제 분야에서 고용을 찾음으로서 돈을 벌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들은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들은 삶의 양식에 대한 변화를 주저하면서 노동의 다른 형태에 적응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집들은 나무, 대나무, 짚, 진흙으로 만들어진다. 10채에서 100채의 가족들이 군집해 한 마을을 이룬다. 계층사회가 그렇듯이 아버지가 당연하게 한 가정의 가장이다. 대부분의 가정은 장남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기본 가족단위로 구성된다. 가장이 죽게 되면 모든 권위와 의무는 장남에게 승계된다. 대부분의 결혼은 전통적인 힌두 의식과 풍습에 의해 맺어지고 거행된다.

라즈반시족은 매우 간단한 옷을 입는다. 남자들은 도티스와 랑가우티스라 불리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으며 여자들은 패타니스를 입는다(천조각이 그들의 몸을 감싸서 무릎까지 내려

오도록 몸을 가려준다). 서양스타일의 옷이 서서히 더욱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신앙

라즈반시족은 수백만의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힌두교인이다. 모든 마을에는 여신 칼리(창조의 화신)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신당이 있다. 축제는 "파우니(Pawni)"라고 불리운다. 비록 그들이 힌두교의 다사이와 티하르 축제를 즐기지만, 라즈반시족은 그 축제들을 인도의 힌두교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지는 않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네팔정부는 복음의 어떠한 형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극심한 규제에 말미암아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가혹하

게 처벌 받고 있다. 작고 얼마 안되는 라즈반시 신자들은 억압적인 불평등과 싸우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투옥되고 있다. 성경은 그들의 언어로 아직 번역되지 않았으며 영화 "예수"도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또한 이 지역에는 기독교 라디오방송이 전파를 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민족 가운데서 일하는 선교단체도 전혀 없다.

소수의 라즈반시족 신자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탐입과 성경, 기독교방송과 네팔지역 선교사들의 부족으로 라즈반시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 그들의 고립 역시 외부인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다신주의를 믿는 라즈반시족과 같은 민족들에게는 유일신을 믿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성을 중성으로 표기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7명으로

자신의 성(性) 정체성을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중성'(제3의 성)으로 표기할 권리를 얻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주민이 7명으로 늘었다.



16일 NBC 방송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전날 성 정체성을 '넌 바이너리'(non-binary)로 바꾸고 싶다면 데이비드 스트래튼(69), 차르 크로퍼드(32), 신 페리시(34) 등 캘리포니아 주민 3명의 청원을 승인했다.

바이너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뜻을 함축한 단어로 결국 '넌 바이너리'는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라는 뜻이다. 법원의 승인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각종 서류에 자신의 성을 넌 바이너리라고 함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오리건 주 밀트노마 카운티 지방법원이 성전환 여성 제이미 슈프(52)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에게 '여성' 대신 '넌 바이너리'로 표기하도록 판결한 뒤 관련 청원이 줄을 이었다.

새러 캘리 킨(55)이 작년 9월 캘리포니아 주 샌타크루즈 법원의 승인으로 '넌 바이너리' 합법 표기권을 얻은 두 번째 미국인이 됐다. 캐머런 우, 레인 에머리 첼벌레인, A.T. 푸루야도 캘리포니아 주 법원 덕분에 '넌 바이너리' 대열에 가세했다.

'넌 바이너리'로 성을 바꾼 사람 중 일부는 남성과 여성 염색체를 모두 지닌 체로 태어난 간성(間性)이었다. 나머지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제3의 성을 희망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 두 명은 '넌 바이너리'가 늘자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와 같은 공문서에 '제3의 성' 표기 항목을 삽입하는 법안을 올해 1월에 발의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각 정부 기관이 공문서 양식에 '제3의 성'을 추가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넌 바이너리' 표기 권리를 얻은 8명 중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의 성을 바꾼 사람은 아무도 없다. NBC 방송은 뉴질랜드에선 간성 또는 '넌 바이너리' 국민은 여권에 성을 'X'라고 표기한다고 소개했다. 대부분은 M(Male·남성) 또는 F(Female·여성)로 적는 다.

그러면서 할소심이 행정명령 중단 판결을 즉시 뒤집고 재실시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임금지령의 대상과 범위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법원에 낸 해명서에서 "행정명령의 여행금지 대상은 미국에 한번도 온적이 없는 외국인이지 해외여행을 가려는 미국 거주 합법적 영주권자나 이민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대상자에 대한 금지적 적용은 합법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이 항소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법원 내부로부터 "재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시드니 토머스 제9 연방항소법원장은 전체 재판관 투표를 거쳐 전원재판부 재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심이 결정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11명의 전원재판부로 확대된다. 그러려면 이 법원 소속 판사 25명 가운데 과반이 이를 지지해야 하나,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주법원 "트럼프, 반이민행정명령 법적 때배 인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두고 벌어진 법정 투쟁에서 패배를 인정했으며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다른 대안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드러났다고 행정명령 집행 중지 첫 판결을 한 워싱턴주 법부가 16일 밝혔다. 워싱턴 주 법 파커슨 법무장관은 9차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새로운 서류를 제출한 직후에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7개국 출신의 입국금지령을 내린 직후 위헌적이라며 법정 소송을 제기해 중단시켰다.



2개 주정부는 16일 항소심에 제출한 서류에서 하급심의를 판결을 재검토하기 위해 11명의 재판부 전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 검찰의 노아 퍼셀 차관은 재판부를 3명만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법원의 과거 판결의 전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도 16일 이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정부의 항소를 맡을 재판부 인원을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 행정명령은 폐기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소심이 행정명령 중단 판결을 즉시 뒤집고 재실시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임금지령의 대상과 범위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법원에 낸 해명서에서 "행정명령의 여행금지 대상은 미국에 한번도 온적이 없는 외국인이지 해외여행을 가려는 미국 거주 합법적 영주권자나 이민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대상자에 대한 금지적 적용은 합법적이라는 주장이다.

미 국민들 "언론보다 트럼프 더 믿는다"

미국 시민들이 언론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폭스뉴스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실을 말한다(tell the public the truth)"고 답한 이는 45%에 달했다. 반면 언론이 진실을 말한다고 답한 이는 42%에 불과했다. 10%는 둘 모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언론으로부터 유독 과하게 비판 받는다고 답한 이는 68%에 달했다. 반면 언론이 트럼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답한 건 18%에 불과했다. 다만 응답자의 55%는 트럼프를 가혹하게 다루는 게 미국을 위해 더 낫다고 응답했다.

공화당 지지자 대다수는 트럼프를 더 신뢰했다. 설문문에 참여한 공화당원 중 81%가 트럼프가 진실을 말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원 중 79%가 언론을 믿는다고 응답했다. 무당층 중에서는 트럼프를 믿는다고 답한 이가 52%로 언론을 믿는다고 답한 26%의 두배에 달했다.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를 신뢰하긴 했지만 공통적으로 그의 언행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 중 71%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과 방식을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트럼프는 16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사람들은 당신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the public

doesn't believe you people anymore)"라고 발언해 집단 반발을 산 바 있다. 심지어 외신인 영국 BBC방송 기자에게도 비호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로 고른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다.

김정남 미스터리...외신들 연일 탐기사로 다루며 '혹각'

외신들이 김정남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연일 탐기사로 다루며 혹각을 세우고 있다. 17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시아 온라인판 탐기사에 '김정남의 미스터리(The Mystery of Kim Jong Nam)'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이번 사건과 김정남의 과거 행적을 조명했다.



WSJ은 김정남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더 깊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김정남이 정치적 야심을 거의 드러내지 않은 반면, 포르투갈 와인과 페라가모 로퍼를 좋아하고 아시아 전역의 나이트클럽을 드나들며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소개했다. 김정남의 등에는 보통 정치인과는 거리가 먼 용 문신도 새겨져 있었다.

또한 WSJ은 지인들의 입을 빌려 김정남이 5개 언어를 구사했으며, 국제 현안에 관해 토론하기를 즐겼다고 전했다. 특히 김정남은 최근 유럽에서 빈번해진 테러를 심히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김정남이 유학하며 어린시절을 보낸 곳이다. 그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페이스북 계정에는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유행한 프랑스 국가 문양 프로필 사진도 있었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김정남의 성향은 정치 지도자보다는 일정한 지성을 갖춘 자유사상가(free thinker)에 가까우며, 사실상 북한 체제와 어울린다고 보기 어렵다.

김정남의 한 지인은 WSJ에 "그는 자신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지적인 자유사상가였다"며 그가 독재자의 손자이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불편해했고 생전에 "북한 인민이 안쓰럽다"며 동일을 바랐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안을 심층 분석하는 '빅 리드(Big Read)'란을 김정남 암살 사건에 할애했다. FT는 이번 암살 사건을 계기로 그간 미국과 중국이 시행해온 고립주의 외교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문은 "이번 사건과 그 안에 깊이 감춰진 의도는 현 북한 정권의 속성에 대해 유익한 교훈을 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제재를 통한 경제·외교적 고립 전략이 작동하지 않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FT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 경제를 억압해 정권을 약화하려는 전략을 중단하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존 텔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포인터페이스 기고문도 소개했다.

AP통신 역시 김정남 암살 사건 수사 상황을 속보로 전하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통신은 김정남 암살의 배후가 김정은이었던지 연인 혹은 범죄 조직이었던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를 둘러싼 루머가 무성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별도 기사를 통해 북한의 '백두혈통'을 소개하면서 만일 북한 공작원이 김정남을 암살한 것이 사실이라면 백두혈통 신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세계 주요 언론들은 북한 국제 신분증을 가진 용의자가 17일 밤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되는 등의 수사 속보도 빠뜨리지 않고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NYT, 트럼프에 '복핵동결' 목표 협상 촉구

뉴욕타임스(NYT)가 사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핵 동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는 '북핵 폐기'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 한·미·일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NYT는 20일자 사실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 21개를 제조할 연료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운반할

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며 "북핵 프로그램을 폐기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는 핵연료 생산과 미사일·핵실험 동결"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신문은 "1994년 북핵 합의 이후 거의 10년간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은 동결됐다"며 "그러나 이후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폈지만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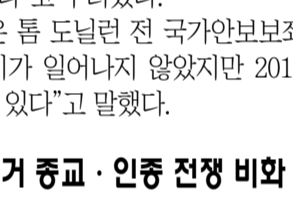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는다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제재 해제와 경제적 지원, 항구적 평화협정 체결 같은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은 19일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정권 붕괴, 핵무기 통제 불능'을 북한발 3대 위협으로 꼽았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쏘는 미사일은 그나마 위험도가 가장 낮다"면서 "어느 시점에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핵무기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팔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톰 딜너란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아직 북한발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2017년에 첫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종교·인종 전쟁 비화

4월 결선투표를 앞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반(反)기독교, 반중국 정서가 큰불을 지폈다. 중국계 기독교인 현 주지사를 쫓아내려려고 이슬람 강경파가 총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대권 도전의 디딤돌이어서 각 세력이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지난 15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바스키 차하야 푸르나마(51) 주지사가 43%, 아니에스 바스웨단(48) 전 교육장관이 40%를 득표했다. 수실로 Bambang Yudhoyono 전 대통령의 아들인 야구스 유도요노(39)는 17% 득표에 그쳤다. 이는 잠정 결과다. 공식 개표 결과가 이와 대동소이하게 나오면 과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1위 푸르나마와 2위 바스웨단이 4월에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푸르나마 주지사는 중국계 기독교인이며 조코 위도도(55)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다. 바스웨단과 유도요노는 모두 무슬림이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것을 감안하면 유도요노를 지지했던 무슬림 표 상당수가 결선투표에서 바스웨단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 인도네시아 특유의 종교 환경 때문이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온건한 이슬람'과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다. 이슬람의 5개 종교(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종교 간 사이도 좋은 편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푸르나마가 지난해 9월 대중 연설에서 "코란이 무슬림이 아닌 지도자를 금한다"고 왜곡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무슬림 강경파가 '신성모독'이라며 들고일어났다.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고 푸르나마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종교적 요인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사회적 불평등 요인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의 1%에 불과하면서도 경제권을 장악한 중국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감을 무슬림 강경파가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무슬림 강경파는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전을 주도했다. 위도도 대통령과 푸르나마로 대표되는 비주류 개혁파에 위위감을 느낀 기성 정치권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푸르나마가 끝내 재선에 실패하면 위도도 대통령의 2019년 재선 도전에도 타격이 될 전망이다. 푸르나마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21. 김익성

김익성(金翊成)은 1870년경에 황해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10살 차이가 나는 부인과 결혼하여 30세가 되던 1900년에 아들을 낳았다.

을 목적했고, 동족단결, 민지개발, 국정쇄신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김익성이 최윤백 등과 함



세인트 앤드류 프로 성당



세인트 엘리자베스 성당

개성남부교회 지도자로 사역시작, 하와이 이주 후엔 성공회로 이적 첫 해외 한인교도소 사역자 추정... 독립운동위해 신문, 협회도 조직

개성 남부교회

김익성이 아들을 낳기 한 해 전인 1899년 12월에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인 찰스 T. 콜리어 목사가 개성에서는 최초의 교회가 되는 남부교회를 설립했다. 윤치호의 이모부이자 개성의 유지였던 이 건혁이 중요 개척 멤버였고, 김익성은 본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김익성이 콜리어 선교사로 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보여진다. 그의 세례명은 '이사야'였다.

1905년 본 교회 부인들이 자진하여 '성미봉헌 운동'을 시작했고, 이러한 운동이 교회 부흥을 이끌었는데, 김익성은 1년 전까지 본 교회 평신도 지도자였으므로 그의 지도력에서 가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와이

김익성은 개성에서 서울로 이주한다. 김익성(Kim Ik Sung)이 1904년 5월 6일에 도리호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가 34세 때다. 24세의 부인과 4세의 아들이 동행했다.

호놀룰루에 도착한 김익성과 그의 가족은 하와이의 와이파후로 이주하고 이곳 농장에서 노동했다. 그런데 김익성이 이곳 와이파후에서 감리교 윤병구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그 후 김익성은 와이파후에서 카후쿠로 이주했다.

신민회 비판

1903년 11월 흥승하의 지도로 감리교 계통의 인사들이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구국정신을 고취하여 일제의 침략행위를 제어함



샌즈 집사와 E.C. 페리 부인

게 신민회의 명칭이 신민(臣民)이 아니라 '신민(新民)'이라는 점과

강령에 '국정쇄신'을 내건 점 등을 들어 대한제국을 전복하려는 반역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신민회를 대한제국에 고발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의식 이외에도 한인들의 종교적 분파와 전대금 수봉사건 등으로 1904년 4월 신민회는 결국 해체되었다.

신조신문

1904년 3월 신조신문이 발행될 때 김익성이 주필이었다. 사장에 최윤백 그리고 번역에 최영만이 맡았다. 호놀룰루에서 한글로 논설과 잡보, 외보, 광고로 구성하여 손으로 써서 등사판으로 밀어 1년여 동안 2회 발간되다가 그 이듬해 4월에 재정난으로 폐간되었다. 그러나 신조신문은 하와이 한인 동포에게 지식을 개발하고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고취하려는



세인트 엘리자베스 성당

열성이 있었고,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본다.

하와이 성공회

1905년 김익성은 최진태와 정현구 등과 함께 하와이 성공회 감독 헨리 B. 레스테릭을 찾아가 한인 성공회를 세우도록 부탁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 해 2월 호놀룰루의 목조 건물인 성 안드레 성공회의 '프로 성당' 친교실에서 하와이 한인 성공회 성립예배가 있게 된다. 이후 김익성은 박 존과 더불어 평신도 한인 전도사로 활동한다. 코할라 성 어거스틴교회 한인 회중에게서 한국어 기도문을 빌려와 손으로

베껴 사용하였고, 한국 성공회 아더 B. 터너 주교가 보내준 한글 기도문을 이용했다.

한인 성공회의 담임사제인 성 엘리자베스 성공회의 윌리엄 E. 파트와인 사제의 지도하에 김익성은 전도하고 모임을 인도했다. 그는 1909년 11월 2일 신한국보에 "이번에 본국서 국문신구약이 여러 형제자매는 기회를 잃지 말고 즉시 사다 보시오. 우(송)비는 따로 받음"이라는 광고를 내고 성경 보급에도 열심을 냈다.

그런데 참미 소리가 크다는 불평이 일어나 한인 성공회는 이올라니 학교 건물에서 1908년에 파트와인 사제가 섬기던 성 엘리자베스 성당으로 이전했다. 본 성공회는 1902년 10월에 중국 이민자들을 위해 창립했고, 1905년 5월에 성당을 건축하였다. 한인 성공회는 두 번의 미사를 드렸는데, 주일 오전 미사는 영어로 중국인 미

국어반

1906년 경 김익성은 성 엘리자베스 성당에서 매일 오후에 국어반을 개설하고 교장이 되었다. 그

1905년 김익성은 레스테릭 감독과 협의하여 성공회 교인이었던 E.C. 페이 부인과 샌즈 집사를 초빙하여 어린이 주일학교를 개설했다. 주일학교는 약 11년간 계속된다. 김익성은 주중 주일학교도 개설하여 성경과 교리를 가르쳤다. 그는 전흥협회 사무실에서 야간 영어반도

샌즈 집사와 E.C. 페리 부인 개설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미국인 부인들이 영어반 교사로 섬겼다. 이들 미국인 교사들은 학생들을 성 안드레 성공회 영어 미사와 성 엘리자베스 성공회 중국어 미사에 초청하는 등 전도에도 열심이었다.

국어반

1906년 경 김익성은 성 엘리자베스 성당에서 매일 오후에 국어반을 개설하고 교장이 되었다. 그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는 등 대한제국의 국가적 위기를 알게 된 김익성은 1907년 호놀룰루에서 박상하, 최병현, 조병요 등 성공회 교인 50여명과 함께 전흥협회를 조직하고 그 회장이 되었다. 북벌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그는 충성을 다하여 국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1908년 9월에 전흥신보를 발간하였고, 후에 전흥월보로 바뀌면서 매달 발간된다. 그는 1909년 1월에 전흥협회가 하와이 합성협회에 합동하기까지 활동했다.

성 누가 한인성교회

1908년 성 누가 한인 성공회의 재적수가 100여명에 이르렀는데 이중 14명은 한국에서 영세를 받고 이곳에서 건진성사를 받았다. 그 해 박상하, 조병요, 이봉선 등 12명이 영세를 받았고, 이봉선은 그 후 40년간 전도부인으로 봉사

했다. 1909년 1월말 주일 오전 미사에 44명이 참석했고, 같은 날 저녁 미사에서 7명이 영세를 받았다. 1906년에는 성인 남성으로만 구성되었는데 반해 1909년에는 교인의 절반이 부인과 자녀들이었다. 1909년 2월 성공회 교회보가 보도한 대로 한인 회중의 성실함과 경건한 예배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사임

19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김익성은 호놀룰루의 중국인 사무엘 K. Y. 리의 집에 방을 얻어 살면서 통역관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아들 베드로는 있었지만 그의 부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혹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1911년 김익성은 평신도 한인 전도사직을 내려놓게 된다. 북한에 선교의 문이 열려 광명교회가 개성남부교회를 재건하면 김익성의 사진과 그에 대한 자세한 행적이 들어날 것을 믿어 마지않는다.

damien,sohn@gmail.com

주일학교와 야간 영어반

사보다 1시간 먼저 10시에 드리고, 저녁 미사는 한국어로 드렸는데 중국인 미사보다 뒤에 드렸다. 김익성은 파트와인 사제와 협력하여 미사 순서에 참여했다.

김익성은 오전과 오후에 영어 성경반을 시작했다. 교사는 파트와인 사제가 맡았다. 김익성은 '10계명 교리문답'과 한국의 터너 주교가 보내준 '가상침인'을 등사하여 교재를 준비했다.

한인 성공회는 이른바 오늘날의 다민족 선교의 일환이었다. 파트와인 사제는 일본인과 하와이 원주민에 이어 한국인까지 자신의 성당에서 자국민의 언어로 영혼을 구원하려는 선교의 손길을 뻗었던 것이다.

1914년까지 교장을 역임했다. 학생들이 많을 때는 80여명에 이르렀다. 국어반은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와 산수도 가르쳤다. 본 국어반은 진주만 폭격이 있던 1941년 12월까지 약 35년간 계속되었다.

성 메리교회와 전흥협회

김익성은 성 누가 성공회 외에도 호놀룰루의 백인 성공회인 성 메리 성당에 출석하는 한인들을 위하여 통역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한인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었다. 그리고 교도소를 방문하여 한인 동포들에게 심계명을 가르치는 등 전도하고 상담했다. 이는 국외 한인 교도소 사역의 최초로 보여진다.

성경도 신앙 (26) 청교도들의 예배 (1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8. 사적인 예배에 대하여 유의 할 사항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는다. 개인적인 사건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에 비해 공예배는 지루함을 느낄 때가 많고 일방적이며, 별 감동이 없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공예배가 항상 더 소중한 다는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적인 예배에 대해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모든 예배의 판단 기준은 경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다. 또한 그것이 덧없이 흘러가는 번쩍거림이 있을 수도 있고, 쉽게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인 감정 요소들이 심령 안에 있을 수도 있다. 그것들이 다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웃음과 그릇된 환상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꾸밀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영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의하여 더 무게 있게 움직이더라도 거기에 활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일들은 어둠의 영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일 수도 있다(고후 11:14)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점을 늘 기억하며 성도들의 경

로 알 것이다.

공적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성도들을 만나주실 때 개인적인 시간에 느끼는 것보다 심령이 더 많이 감동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열매들이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갖도록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공예배를 무시하기보다 오히려 존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5)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게 된다.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더 즐거워

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5:3-6).

6) 개인의 유익보다 공적인 유익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

공예배는 공적으로 더 교화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준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유익보다 개인의 유익을 더 선호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듯이, 영적인 삶에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공적인 시간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주님께서도 특별한 상과 더불어 그러한 자세를 요구하시며 권장하신다. 개인적인 경건시간에 더 많은 유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개인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공예배 시간에 더 많이 드러난다.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신다. 그분의 영광을 더 많은

판단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개인 경험은 늘 조심해야 공예배에서 하나님 임재 못 느끼면 개인 잘못 점검해보도록 예배 구경꾼 되면 안돼...개인적 유익보다 하나님영광이 우선

은 은혜롭고 감동이 넘치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항상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개인의 경험은 늘 조심해야 한다.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험만을 앞세우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감각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은 느낌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감각을 따르는 우리의 판단은 종종 빛나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머무는 경험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경건 시간이 더 은혜로우 수 있지만 항상 그러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2) 개인의 경건시간에 누리는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경건시간에 누리는 즐거움이 크지만 그렇게 특수한 경우가 일반적인 규범이 될 수는 없다. 특별한 경우에 체험하는 경험들을 보편화하기는 어렵다. 공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의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 거짓된 원칙에서 비롯되는 풍성한 기쁨과 성취가 있을 수도 있

함을 점검해야 한다.

3) 특별하고 예외적인 원칙이 일반적인 원칙을 폐할 수 없다.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간혹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은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것들이다. 그런 예외가 일반적인 규칙을 제한할 수 있지만 무시하지 않는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공적인 예배를 무시할 수는 없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공예배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4)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는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의 열매일 수 있다.

개인적인 예배에서 발견되는 보충적인 은혜와 더 확장되는 은혜, 그리고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애정의 표현들은 공예배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공적인 예식이 주는 유익들은 공예배 시간에 전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난 후에도 그 후광이 나타난다. 예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은 이 사실을 경험적으

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영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그리스도를 갈망한다. 그것이 자신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적 갈급함과 애통함의 표현이다. 주님을 더 많이 즐거워할 수 있기를 열망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가난한 심령과 굶주린 심령이 있는지를 보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겸손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반드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적인 모임들을 통해 그렇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 하려니와”(시66:1,2).

예수님께서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가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예배이다. 그 시간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보다 공적인 시간을 더 선호해야 한다.

7)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개인의 잘못을 점검해야 한다.

성도가 왜 성경적인 바른 공예배가 집전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며 영적인 유익을 더 많이 얻지 못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보고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가)공예배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죄악된 행위들이 영적 유익을 차단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도 자신에게 비난받을만한 요소가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공예배의 탁월함을 문제삼기보다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여호와와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민11:23; 사1:15).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빛과소금의교회

새벽비가 주룩 주룩 내린다. 그 비를 맞아보며 어쩌면 바삭 말라버린 잎사귀 같이 만지면 다 부스러질 것 같은 메마른 나의 영혼을 축축이 적셔 주는 가슴 벅참을 만나본다.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숨을 토해내며 살기도 바쁜 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저 순간 한번 잡아 쥐도 금방 눈물이 글썽해지는 착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 올리면 하늘을 쳐다보아도 눈을 감아도 또 운전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가슴 한 구석에 아픔이 스며오고 울컥 눈물이 쏟아지려 하는 것을... 그걸 그냥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해 버리기에 그 의미가 너무 작아질 것 같은... 그렇게 많은 세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며 우린 오늘에 이르렀다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아픔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압북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렇게 두려웠던 형을 만나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옵자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한다. 그렇다. 하나님을 만나니가 두려웠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눈으로 바뀌어 지는 것이다. 우리는 형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한다. 내 남편 속에서 내 아내 속에서 내 자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야 우린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리라.

삶이 깊어 간다는 것은 결국 창조주가 만든 존재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구름을 뚫고 하늘을 보며 지구를 울타리로 삼고 산다면 뭐 그렇게 화날 일이 있겠는가? 뭐 그렇게 죽을 일이 있겠는가? 다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낸 조각이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벽처럼 만나면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어리석음들이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은 마음의 필터를 통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리라. 그래서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세상이 바로 보이는데, 세상만 쳐다보니 마음이 안 보일 수밖에... 그렇다. 집을 보려면 집 밖으로 나가야 하듯 내 마음을 보려면 마음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내 생각이 끝나는 자리야 하지는 시작되리라.

신발이 다 떨어져도 새 구두 하나 살 여유가 없다고 짜증을 냈는데 옆의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니 목발이다. 나는 새 신발 하나 못 신는다고 투덜댔는데 저 사람에게 신발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부끄러워지는지... 그렇다.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날 무엇 하나를 잃었다 해서 내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리라. 오히려 내 것 하나를 잃음으로서 다른 많은 사람의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경지를 깨닫는 것이 삶의 진수가 아닐까. 생명력이다! 나는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

새로움과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는 게으름이 곧 교만이다.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말이다. 늘 그렇게 살면서 새로운 내일이 오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살았던 38년 된 병자처럼 참 오래도 그렇게 살았다. 병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살려달라는 외침인데 계속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니 할 수 없이 병이 찾아온다.

이제는 38년이나 주저앉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주님의 말씀이 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도 좀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사람은 설 수 있어서 사람인 것을, 다시 한 번 몸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고 뜻을 세울 때 보고 싶지 않아 외면하고 살았던, 놀러놓고 참았던 그것들을 조금씩 대면하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씀, 결국은 사랑이 이긴다는 진리를 증명해 보이는 내 삶이 되리라.

원하는 것 따로 말과 행동 따로 산 결과로 파배기처럼 꼬여있는 인생을 하나 하나 풀어 가는데 제법 시간이 걸린다 해도 성심을 다해 풀고 풀면 나사르를 향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던 주님의 음성에도 오늘도 오펝이처럼 일어나 그 일을 계속하게 되리라.

changsamo1020@gmail.com

토요칼럼

최고의 재료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빵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을 치렀다. 사장은 완벽주의자라서 90점 이상이 안 되면 채용을 하지 않았는데 64점 밖에 맞지 않은 사람이 합격했...

재료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정성(精誠)이었던 것이다. 정성(精誠)은 참되고 순전한 마음이라고 정의가 된다. 따라서 정성은 빵을 만드는 최고의 재료일 뿐 아니라 모든 일의 동기(動機)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성 없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열납(悅納)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인은 자기의 제물에 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살피지 않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쳐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다.

양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맛있다. 왜 그럴까? 손맛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성의 맛이 그 음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류요리사가 만든 음식보다 더 자식들에게 잘 맞고 입에 감돈다. 바로 정성의 힘이다.

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니"가 바로 진인사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가 대천명이다. 진인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인 것이며 대천명은 사람을 결코 할 수 없는 분야다.

되어 하나님의 눈 밖에 났으니 이 판사판이라는 오기였을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는지 모르나 죄는 죄를 낳고 나날이 그 죄가 커지고 많아진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더하시라 약속을 지어 입하신 뒤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으며 죄가 더해지자 사람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며 문화를 박살(撲殺)내셨다.

유학생 비자 장사 한인 유죄 확정 일부 목회자그룹 구명운동 추진 움직임 우려

LA 한인타운에서 정규인가 학교 4곳을 운영하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자장사를 해온 한인 3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미 주류 언론은 최근 연방 검찰이 지난 2015년 3월 비자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학교 소유주 겸 운영 총책 심희선 씨가 이민서류 위조와 공모혐의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6개월간 1,800달러를 받는 식으로 한인 3명이 비자장사로 연간 6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검찰은 프로디대학/네오-아메리카 여학원, 얼터제이 M.D.교육센터, 미국 포렌식 스테디 칼리지, 리카패션앤드 테크놀로지 칼리지 등 기소된 이들이 운영하던 4곳의 학교를 덮쳐 비자 사기를 적발했다.

신학교(총장)에 대해 남가주교회의 일부 임원들 주도로 구명운동을 벌여 출감을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해 법을 위반한 자가 충분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감이 된 결과가 불법학교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정명 목사 '우리함께 걸어 행복한 그길' 출판 감사음악회에서 연합합창 순서로 송정명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송정명 목사 저서 출판감사음악회 "우리함께 걸어 행복한 그길"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송정명 목사의 저서 '우리 함께 걸어 행복한 그길' 출판 감사음악회가 18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말을 했으며 박희민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국제총제)가 축사했다. 이어 송 목사의 목회사역에 대한 동영상 소개가 있었으며 송정명 목사가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음악회는 오페라 캐럴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Jesus the Same', 색소폰연주자 정창균 목사가 '예수 사랑하심을'과 '난 예수가 좋다오'를, 글로벌메시아찬양선교단인 '나 이제 갑니다', '한번 더 타오르게 하소서', 미주평안교회찬양대가 '죄짐 말은 우리 구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소프라노 신선미가 '하나님의 사랑', 라크마콰이어가 '참 좋은 주님', '예수를 불렀으며 연합합창으로 '축복'을 불렀다.



GMU 유학생 및 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강좌에서 구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GMU, 유학생/신학생 위한 세금보고강좌

유학생 및 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강좌가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 라이브러리에서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분교 구자혁 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가졌다.

가 주는 혜택 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특히 △유용한 세부정보-크레딧카드, 크레딧스코어로 진행했다. 구 교수는 "세금은 미국 시민과 거주자들이 연방, 주(State),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돈으로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의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다"고 말하고 "SSN 신청서 서류는 원본을 가져가야 한다. 사본을 가지고 가면 거절당한다. 소셜오피

스에서 학교를 먼저 체크하고 이상 없으면 해주며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승인여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 면제대상은 교회와 선교회 등 종교기관과 비영리단체가 있다. 하지만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크레딧 카드는 30%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30% 이하로 3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크레딧 스코어가 730점 이상 된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크레딧 스코어는 730점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전국 33개 지부 총 80명 참석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대회 성황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대회가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아리조나 템피한인장로교회(담임 양성일 목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버지를 50여명과 아리조나 지역 약 30여명 등 총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됐다. 첫날인 17일 오후 3시부터 2016년 각 지역 사역보고를 시작으로 아리조나 열방교회 담임 김재욱 목사가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신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처럼 우리도 쓰임 받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내용의 메시지로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심어주었다. 이어 아리조나 템피한인장로교회의 남녀혼성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과 2017년도 미주 본부의 전체 사역 계획을 발표했다. 새벽기도로 시작된 18일에는 미주본부 미디어팀이 각 지부와 소통하기 위한 SNS 사용방법을 발표하고 올해 해외 아웃리치로 계획한 우크라이나와 블라디보스톡 지역 교회들과의 연합에 관해 미주본부 이명철 사무국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33개 지부의 건의사항과 개선점을 나누는 패널토의를 마친 후 양성일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18년 미주대회는 버지니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두란노아버지학교)

뉴욕목사회 2차 성경탐사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27일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에 앞서 지난 16일 성경탐사 세미나를 가졌다. 오후 4시30분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는 강사 김경래 목사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준비한 영상물로 설명했다(사진). 성지순례는 28일 텔아비브에 도착해, 예루살렘, 지중해, 갈릴리, 벳산국경, 암만, 페트라, 알라비, 사해, 사마리아 등의 여행지가 일정으로 잡혀있다.

극단 이즈키엘 뮤지컬 '청년예수' 리메이크 3월 11일, 18일 오후 7시30분, 780석 교회서

극단 이즈키엘(단장 전수경)이 재 변신에 나선다. 이미 10회 공연 88석의 소극장으로 거의 천명에 가까운 관객을 불러들인 극단 이즈키엘의 뮤지컬 '청년예수'가 780석 규모의 옛 오페라 극장이자 구 만나교회 장소인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대극장용 리메이크로 선을 보이게 된다. USC Bing Theater에서 4000명의 관객들을 끌어들이던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의 연출가 이영아 씨, 한국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뮤지컬단의 연기 감독인 곽은태 씨, 뉴욕주립대-버팔로 캠퍼스 공연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LA 소재 A.M.W. 텔런트 에이전트 소속의 배우 신경원 씨가 주인공 예수 역으로 3월 11일과 18일 오후 7시30분 2회에 걸쳐 공연을 하게 된다. 배우 신경원씨는 "주인공인 예수

역을 맡게 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을 전파했던 인물을 표현하는 이 작업이 현실적인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다양한 두려움들을 극복해야만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생각해주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뮤지컬 '청년예수'는 구한말 일제 강점기로 예수 공생애 마지막 3년을 한국인 정서로 풀었던 총 길 이 2시간 20분, 22개의 날짜, 총 21명의 캐스트들이 출연한 작품이다. 극단 이즈키엘은 전문 크리스천 예술인 양성을 위해 이즈키엘 아카데미를 준비 중이며 동양계 전문배우들로 구성된 영어뮤지컬 '청년예수'도 준비 중이다. 그 외 올해 공연되는 흥미진진한 작품들에 참여할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활발히 찾고 있다. http://ezekiel.la ▲연락처: (213)200-9544, (기사제공: 극단 이즈키엘)

IKEN, 한국어온라인학교(KECOS) 론칭

세계 한국 교육자 총연합회 (IKEN, 공동회장 김성순, 박엘렌)는 지난 7일 열린 총회에서 김성순 과 엘렌박을 공동회장으로 선출하고 지난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온 KECOS 한국어온라인코스를 론칭하기로 결정했다. IKEN은 2014-2016년에 한국교육원(원장 권영민)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한국어코스(KECOS Level 1-4)를 개발 완료하고 론칭을 위해 2016년에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에서 승인하는 A-G Approval을 획득했다. 2016

년에는 한국어온라인학교(KECOS) 인가를 가주교육국에서 받고 정규 고등학교에서 파일럿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온라인한국어코스 등록은 www.ikeneducate.org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AC-IKEN-KLTA 간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NEWL Korean School을 치러던 선형학습 코스웨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코스웨어 듣지 않고 시험만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어온라인코스 LEVEL 4를 선택하거나, 한국어반 Level 4를 선택하거나 한국어반의 다른 level을 2년 동안 공부한 증명서 있으면 된다. NEWL Korean 시험은 온라인 테스트이며 2017년 4월말에 치러질 예정. 각 학교의 한국어반 교사들이나 IKEN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www.ikeneducate.org ▲문의: (909)973-0449 (기사제공: IKEN)



청년예수 포스터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 뉴저지 공동 세미나 및 학술대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뉴욕, 뉴저지 공동 세미나 및 학술대회인 '예수만나 성경세미나'가 유철운 목사를 강사로 뉴욕장로회신학대학교와 뉴저지교협, 뉴저지목사회, 뉴욕교협, 뉴욕목사회 주최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개최된다. △구약: 3월 20일(월)-25일(목), 오전 9시-오후 4시, 뉴욕 신일교회(담임 박맹준 목사) △신약: 3월 27일(월)-30일(목), 오전 9시-오후 4시, 뉴저지 필그림교회(예정) △성경의 맥잡기: 3월 27일(월)-29일(수), 오전 9시-오후 4시, 뉴저지 필그림교회(예정) △학술대회: 3월 26일(수), 오후 5시-9시, 뉴저지 필그림교회(예정), "예수만나 성경 세미나"/유철운 목사, "종교개혁과 이민교회"/조진모 목사. 참가비는 각 세미나마다 1백달러이며 참가대상은 목사, 전도사, 신학생. 마지막 학술대회는 참가비가 없고 참가자도 모든 성도들에게 개방한다.

▲문의: (201)787-1422 뉴저지교협 총무 장동신 목사

2017 선교사집중훈련 및 PGM 북미권역 선교대회

2017 선교사집중훈련 및 PGM(세계전문인선교회,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 북미권역 선교대회가 5월 15일(월)부터 21일(주)까지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공휴, 건축사역 등이며 등록비는 개인 250달러, 부부 400달러(항공표 개인부담). 훈련내용은 △선교의 제4물결 △PGM 4대 핵심가치 △선교사역 △타문화권 전도 △지역사회 △선교전략 △선교와 영성관리 △직장과 선교 △Here & Now △전도실습 △캠퍼스전도 전략 △선교집회 등이다. 주강사 호성기 목사, 배현찬 목사, 김은범 목사 외 11명의 강사가 인도한다. www.pgmusa.org

▲문의: (610)397-0484, admin@pgmusa.org

퀸즈장로교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제 30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가 3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일 오전 5시45분에 드려진다. "너를 고쳐 주리라-건강할지어다!" 주제로 열리는 사순절 기도회에는 삼겹살 기도 카드도 받고 있다.

▲문의: (718)886-4040



뉴욕장로연합회 초청 뉴욕교협 및 목사회 임원초청 만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 46차 조찬기도회 뉴욕교협 및 목사회 임원초청 간담회도 가져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제 46차 조찬기도회가 16일 오전 8시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개최됐다.

남후남 장로 인도로 기도 정대열 장로, 말씀 양민석 목사("밀알의 영성", 요12:24-26), 특별기도(△조국과 미국을 위하여/박성범 장로 △장로연합회에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신철승 장로) △뉴욕그레이트네교회를 축복하소서/김재관 장로), 현금특송 장로중앙단, 현금기도 주윤덕 장로, 사회자 광고, 양민석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제2부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세미나는 회장 손성대 장로의 인사에

이어 강사 김영호 목사의 소개에 이어 "루터의 4단계 회심과 종교개혁"(롬1:17)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손성대 회장은 "회원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로연합회는 27일 오후 12시30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뉴욕교협 및 목사회 임원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뉴욕장로연합회 3월 월례기도회는 3월 17일(금) 오전 8시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이민목회 36년 목회 철학과 위기관리

뉴욕교협, 이용걸 목사 초청 세미나 및 교회부흥사례발표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이



뉴욕교협 세미나 강사들과 교협임원들. 오른쪽부터 임병남 총무, 이만호 부회장, 김홍석 회장, 이용걸 목사, 백운영 목사, 김경원 장로, 우창환 장로.



퀸즈장로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전 출연진들이 연합합창을 하고 있다.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퀸즈장로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음악회

2017년 설립 43주년을 맞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지난 19일 오후 4시 기념음악회를 가졌다.

채영주 집사(킹스콰이어 단장) 사회로 김미경 권사(블레스콰이어 단장) 기도 후 김성국 목사("그날에", 삿5:1-3)가 말씀을 전했다. 김목사는 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말씀을 전한 후에 퀸즈장로교회 내 4개 합창단(글로리아싱어스, 그레이스콰이어, 킹스콰이어, 블레스콰이어) 임명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날 킹스콰이어는 "만유의 주재" "사랑해요" "보혈찬송 메들리" "하늘영광 내 맘에 임했네" "여호

수아 성을 찬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불렀으며 블레스콰이어는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태산을 넘어 환곡에 가도" "교회여 일어나라"를 불렀다.

또 이단비의 오보에(Kazabue,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주혁의 쉘로(The Swan, 축복하노라) 연주가 있었다.

음악회는 연합합창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마지막으로 불렀으며 김성국 목사 축도로 모두 마쳤다.

퀸즈장로교회는 26일(주) 오후 4시 예배를 설립기념예배로 드리며, 이날 장학금 수여와 시무장으로 은퇴식이 있게 된다.

(유원정 기자)

회부흥사례 발표 세미나를 가졌다.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 개회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세미나에서 이용걸 목사는 "바울의 목회"라는 주제로 한국에서의 목회부터 목회 40여년의 체험과 간증을 곁들여 강의했다.

사도행전 20장 17-38절을 본문으로 이 목사는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섬김의 체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한다"며 "하나님의 일(목회)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전임자의 길대로 가면 성공한다"고 말하고 "교회성장이 목회자의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방법은 신본주의로 해야 하며 목회성공은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는 ①그의 마음(17-18절)-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양심과 함께 한다 ②그의 자세(19절)-모든 겸손과 눈물, 인내, 섬김으로 하라 ③그의 가르침-거르김 없이, 하나님의 뜻(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라 ④그의 결심(22-24절)-성령의 인도와 사명을 따라 하며 일사각오의 희생으로 하라 ⑤그의 경계

(28-29절)-자신과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특히 이성, 돈, 명예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라 ⑥그의 삶(35절)-범사의 모범이 되고 도움을 주는 생활을 하라 ⑦그의 작별(36-38절)-기도, 울면서, 목을 안고, 후회 없이 목회하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영생교회가 제공한 오찬 후에는 이용걸 목사가 "목회 위기관리" 주제로, 김경원 장로가 "영생교회 부흥비결"(예수사랑 총동원주일 사례 발표), 우창환 장로가 "전도의 방법"(새생명운동 사례발표) 주제로 강의했으며 마지막으로 이용걸 목사가 "레위기에서 본 목회자상"을 강의했다.

이날 이용걸 목사의 저서 "레위기 강해"가 참석자들에게 무료 배부됐다.

영생장로교회는 이용걸 목사 은퇴 후 새 담임으로 선교사였던 백운영 목사를 청빙하고 '목회자훈련원'을 설립했다.

이날 참석한 백운영 목사는 "목회자훈련원을 통해 세계 전역의 목회자들과 선교 비전을 나누기 바란다"며 "이용걸 목사님의 세미나를 통해 목회원리를 배우고 목회여정의 나눔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글로벌뉴욕어목연 제 4회 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믿음의 유산 후대에 전하는 복된 어머니 되라"

글로벌뉴욕어목연 제 4회 어머니기도회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란 표어로 매월 갖는 어머니기도회가 지난 15일 오전 10시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안경순 목사 인도로 기도 최근선 목사, 성경봉독 이명희 사모, 설교 방지각 목사, 합심기도 박정희 목사 장만자 목사, 현금기도 심화자 목사, 현금특송 조공방지각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믿음의 유산 후대에" (신:6:4-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유대인들의 웨마교육 원리를 통해 1)수직의 원리(자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이려) 2)환경의 원리(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3)지속의 원리(하나님의 말씀을 지

속적으로 철저히 가르치려)" 등 3가지의 자녀교육원리를 전하고 본문을 통해 부모들이 지켜야 4가지 L을 들어 말씀을 전했다.

1)Learn-네가 먼저 배워라. 2)Love-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3)Live-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믿는다. 4)Leave-부모의 신앙교육을 후대에 남기라.

방목사는 "어머니기도회를 통해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복된 어머니들이 되기를" 축복했다.

2부 친교는 오명희 목사의 오찬 기도 후 이진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제5회 어머니기도회는 3월 15일(수) 오전 10시 기쁨과영광교회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어머니기도회)

부고

고 정도인 목사 소천

1979년 도미, 뉴욕에서 새소망교회를 개척하고 38년간 목회했던 고 정도인 목사 임관예배가 2월 14일 오후 7시 중앙장사의사에서 3백여 명의 조객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임관예배는 해외한인장로회 동북노회, 발인예배는 뉴욕목사회와 교협, 하관예배는 바울선교회에서 주관해 열렸다. 장지는 무궁화동산, 유족으로는 부인 김혜식 사모, 아들 정현의(여호수아)가 있다. 향년 72세.

고 이학모 목사 소천

고 이학모 목사가 2월 1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75세. 발인예배는 20일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하관예배는 당일 오전 11시 All Saints Cemetery에서 열렸다. 이학모 목사는 경기고와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고 1971년 도미, 하나님의성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40여년 목회를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화진 목사와 사이에 2남2녀가 있다.



나성영락교회 제5대 담임목사인 박은성 목사가 부임하여 예배설교를 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 5대 담임 박은성 목사 부임 19일 첫 설교...값없이 베푸는 "오직 은혜"

나성영락교회 5대 담임 박은성 목사가 부임한 후 첫 번째 설교를 19일 주일예배시간에 했다.

박은성 목사는 '오직 은혜'(창 28:15-19, 고전15:9-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직 은혜는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행할 때 내세운 말씀"이라며 "은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값없이 베푸는 것이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값없이 베푸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예배를 마친 후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지금도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말"이라 말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집사, 장로, 권사, 교사, 찬양팀 등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큰 은혜, 그리고 새롭게 허락한 자녀와 일꾼의 삶을 살게 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월이 지나도 깨닫고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받은 은혜를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박은성 목사는 지난 1월 첫째 주 주일설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 한달 반 정도 머물며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17일 LA에 도착했다.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 새교육관 채플실에서 열린 영적성숙 특강 세미나에서 김순호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하나님 자녀가 영적 성숙 본질" 나성영락교회 특강세미나, 강사 김순호 선교사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김순호 선교사(아들람선교회 대표)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영적성숙 특강세미나를 가졌다.

17일 저녁 7시에 열린 둘째 날 세미나에서 김순호 선교사는 "성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화의 현실과 현장 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는 것이며 성숙의 기본적인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말했다. 김 선교사는 "영성은 내면 안에

주님과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지식정보를 아는 것이 아닌 주님과 친밀함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이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온 자들이다.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자들이며 나 자신이 죽어진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과학으로 하나님 더 잘 이해하기" 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강사 정명호 전도사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주최한 "과학으로 하나님 더 잘 이해하기"(부제 "과학신학") 세미나가 19일 오후 1시 본교 비전센터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정명호 전도사(월드미션대학교 교수)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 중 창조과학과 과학신학이 있다. 창조과학은 보수적 복음주의 계열 개신교회, 기독교 근본주의적 신앙위에 과학을 수용하는 종교적 유사과학이다. 이를 통해 창조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는다. 하지만 창조과학은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창조과학의 주장은 세계 기독교 주류 신학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정 전도사는 "과학신학은 조직신학의 한 부류이며 최신경향이다. 신학과 과학의 경계, 신학과 과학의 대화, 통합적이고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지지하는 과학이 바뀌면 지지받던 신학이 바뀌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은 이성적 체계적이며 자연과학은 실험을 통해 지식 알아내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실험을 통한 경험을 중시한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과학으로 하나님 더 잘 이해하기 세미나에서 정명호 전도사가 강의하고 있다



골수 이식 필요한 김중원군 살리기 릴레이 기적콘서트가 유스타미디어 주최로 이음카페에서 열렸다

골수이식 김중원 아기 살리자! 유스타미디어 주최 이음카페에서 릴레이 기적콘서트

영국에서 희귀유전병인 '만성육아종병(CGD)' 판정을 받은 뒤 한 줄기 생명의 희망인 골수일치자를 찾기 위해 투병생활 중인 두 살 배기 김중원 군을 돕기 위한 작은 이벤트가 유스타미디어(대표 박상균) 주최로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음카페에서 열렸다.

사랑을 전하는 날인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열린 기적콘서트는 K팝스타 출신 존주, 보컬리스트 지미고, 폴조, 중국계 배우 아이린이,

극단 이즈키엘 뮤지컬 '청년예수' 배우 신경원, 전수경 단장, 히스패닉 청소년 이지 곤잘레스, 소울하모니 등 LA에 뜻있는 음악인, 문화예술인들이 릴레이 공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 나눔 실천을 해 훈훈함을 전했다.

콘서트 현장에는 아시아골수기증협회(A3M)의 골수등록 부스가 설치돼 종원 군을 위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이 병행됐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west

이단분열 및 대책 세미나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가 주최하는 이단분열 및 대책 세미나가 오는 26일(주) 오후 1시 나성제일교회(담임 김문수 목사)에서 열린다. 세미나 강사는 본회 회장인 한선희 목사가 맡는다. ▲문의: (213)388-7101, 909-2820, 484-2574

세계기도일 예배

미주한인여성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세계기도일 예배가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회장 최순자) 주최로 3월 4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개최된다. 올해 기도국은 필리핀. ▲문의: (612)810-1123

40일 하프타임 선교공동체 훈련

그리스도를본받는훈련원은 40일 하프타임 선교공동체 훈련을 오는 4월 17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그리스도를본받는훈련원(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1J8, Canada)에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전문인, 목회/선교 헌신자들을 대상으로 갖는다. 등록비는 1000달러(강의, 숙박, 식사, 출퇴근 시 500달러). ▲문의: (604)525-1800

선한목자교회 고구마 전도특강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고구마 전도특강을 28일(화)과 3월 7일(화) 저녁 7시 45분부터 9시까지 갖는다. 강사는 김기동 목사(소중교회 담임). ▲문의: (909)591-6500

샌디에고 한빛교회 연합부흥회

샌디에고 한빛교회(담임 정수일 목사 4717 Cardin St)에서는 연합부흥회를 3월 2일(목)부터 5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이용남 목사(장석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2일(목) 저녁 7시30분, 3일(금)-4일(토) 새벽 5시30분, 저녁 7시30분, 5일(주) 저녁 7시30분. ▲문의: (858)874-2412

달라스 KUMC 선교부흥회

달라스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는 선교부흥회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는 주제로 3월 3일(금)부터 5일(주)까지 개최한다. 부흥회 강사는 손창남 선교사(OMF선교사)이며 일정은 3일(금) 저녁 9시, 4일(토) 오후 7시, 5일(주) 오전 11시30분. ▲문의: (972)258-0991



찬양교회 2017년 신년축복성회가 '하나님의 권세있는 자녀가 되라'라는 주제로 열렸다

찬양교회 2017년 신년축복성회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는 2017년 신년축복성회를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라'라는 주제로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성회는 조영성 목사(평촌 양문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생명의 부활, 민족의 희망’ 주제

4월 16일 부활절 연합예배, 한국교회 연합운동 상징

오는 4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하나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하나의 성경, 하나의 찬송가 사용이라는 전통과 함께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다.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6일 오후 4시 서울 명성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명의 부활, 민족의 희망’(요 8:12)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부활절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대신,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60여 교단이 참여한다. 설교는 이영훈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이 맡는다.

부활절예배준비위 대표대회장인 이성희 예장통합 총회장은 “연합예배의 장소로 처음으로 서울시청 광장을 알아봤지만 세월호 유족협의회에서 참사 3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로 교회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종교개혁500주년 연합기도회

19개 단체, 27일부터 11월까지 10회

종교개혁500주년 연합기도회 준비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는 나눔교회(조영민 목사·nanumchurch.net)에서 연합기도회를 갖는다.

종교개혁500주년 연합기도회 준비위원회는 철저한 회개와 각성이 한국 기독교에 절실하다는 인식을 갖고, 한국교회와 사회 전반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각 단체와 교회들이 연합기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이다.

이날 연사는 이만열(전 국가편찬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김희권 숭실대 교수이다.

기도인도자는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 이명희 새말교회 집사, 김성우 동서울IVF 대표간사 등이다.

준비위원회는 건강한작은교회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 길가는밴드,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뉴코리아, 새벽이슬,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성서한국,

주거권기독교연대, 청어람ARMC, 평화누리, 하나누리,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희년함께,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IVF사회부 등 총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기도회는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임 예정이다. 횡수는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로 예정하고 있다. 매일 주제가 따라 강연(설교)과 기도문을 나눈다.

또한 온라인 서명페이지를 개설해 이번 연합기도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http://prayer500.kr).

3월 2일을 ‘국가 기도의 날’ 로

국가조찬기도회, 기도회준비위 기자회견

‘지금 이 나라의 정국은 심히 혼란합니다. 하루 속히 병리현상이 치유돼 법치가 세워지고 도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미래 사회의 영적 도전 앞에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2017년 3월 2일 오전 7시. 한국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기도의 불꽃을 모을 예정이다.

제49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채의승 장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준비위에 따르면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는 다음 달 2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다.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목사가 설교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이정익(신촌성결교회 원로) 목사가 각각 기도와 축도를 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정치·경제·문화 등 각계각층의 국내외 인사 2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기도회에서는 헌장 참석자들과 국내외 교회 공동체, 선교사 및 한인 디아스포라 등 전 세계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전에 배포된 ‘국가기도의 날 공동기도문’을 같은 시각에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채 위원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정국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이라며 “전 세계 2000만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한발한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확신하면서 이날(3월 2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에는 헌장 대통령이 불참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4년 36회 기도회 때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여파로 불참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한차례 참석하지 않은 적이 있다. 주최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주요 내빈으로 초청키로 했다.

“선전·선동의 영 바르게 분별케 하소서”

국가기도연합, 서울역 광장서 18차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

국가기도연합은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18차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여론 조작, 선전·선동의 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선규 대전 증거교회 목사는 시편 112편 1-2절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거짓을 진실인양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분”이라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진실과 거짓을 바르게 구분하고 선동 당하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혼란과 위기를 거듭하는 것은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적 이익, 정치생명 연장

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낫따를 하기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악부터 회개해야 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신앙의 시야를 넓혀 내 자녀, 가족을 넘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특검조사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기도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오는 3월 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일련의 재판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후세력과 감추

인 것이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간구하자”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헌재가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양심,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자”면서 “특히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와대, 헌재에 이 나라를 흔드는 어둠의 영적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덮여달라”고 간구했다.

참석자들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거짓·미혹, 선전선동, 여론몰이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집회 가운데 거짓과 미혹, 정치적 욕심, 어둠의 영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읽고 어둠의 세력에 대적하는 기도를 드렸다.

국가기도연합은 국가 안정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에스더기도운동센터에서 매일 철야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다양성·관용·인권 보장된 인권조례 안된다”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400여 명 참석

20일 충남 천안시 백석대 본부동 12층. 1150여㎡(350평)의 국제회의실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동성애 대책 프로그램인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에 참석한 400여명의 성도들로 열기가 뜨거웠다.

첫 포문은 전 법무부 장관 김승규 장로가 열었다. 김 장로는 “동성애 문화는 다양성 관용 인권의 이름에 뒤집어쓰고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안 발의, 학생인권조례와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으로 현실화됐다”면서 “교회는 일치단결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조례를

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운동을 강력하게 벌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터 존스 미국 트루스익스체인지 대표는 “서구 교회는 초창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교도주의로 진통을 겪었다”면서 “근래 들어 또다시 이교도주의의 공격을 받는 상황인데, 그 핵심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인류 종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구별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옳고 그름의 구별을 배격하는 이교도 사상의 절정은

남성과 여성의 구별, 동성애와 이성애의 차이를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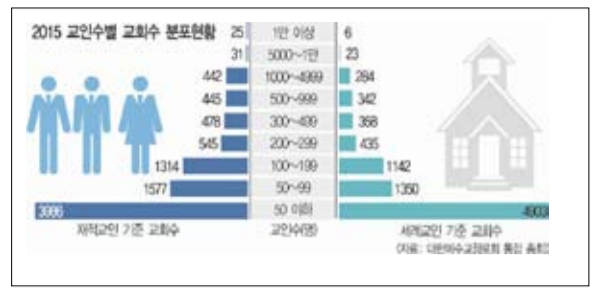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교수도 “고대 근동지역과 초대 기독교회를 둘러싼 지역에도 동성애가 있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앙의 기독교 공동체는 절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자도 우리의 이웃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며 “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며 기독교 윤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교인들 중대형교회 선호현상 뚜렷 "교회 빈익빈 부익부 심화"

예장통합 ‘2015년 교인수별 교회수 분포현황’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산하 8843개 교회 중 교인수 100명 이하인 교회가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교회에 등록된 재적교인은 8%에도 미치지 못해 교인들의 중대형교회 쏠림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장통합은 최근 ‘2015년 교인수별 교회수 분포현황’ 자료를 만들어 이성희 총회장 등 교단 내부에 보고했다. 예장통합은 매년 정기총회 때마다 상세한 교세통계를 발표해왔지만 교인수에 따른



0.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교인수는 64만3831명으로 전체의 23%를 점유했다.

예장통합은 교단 산하 교회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파악하기 위해 ‘연령대별 교세통계’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더 정확한 교세현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장통합 총회 통계위원회(위원장 신정호 목사)는 ‘연령대별 교세통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동안 조사해온 영아부부터 장년

100명 이하 교회 전체 62%, 재적교인은 7.5% 수준

0.1%에도 못미치는 초대형교회엔 전체 23%가 출석

교회 분포 현황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인수 100명 이하의 교회는 5563개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지만 재적교인은 20만9339명으로 7.5%에 머물렀다. 반면 교인이 5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는 전체의 7.4%(655개)에 그쳤지만 이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207만7134명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1만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도 6개로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총회장은 “50명 이하인 교회가 이토록 많은데 이들 교회 출석 교인수는 이렇게 적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이 같은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게 총회의 큰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자료를 교회개혁이나 미자립교회 후원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라며 “통계의 허수를 줄이고 정확한 교세를

부에 이르기까지 영역별 교세통계에 더해 연령대별 교세통계가 나오면 더 정확한 교인분포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정호 통계위원장은 “그동안의 통계가 교세를 세밀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연령대별 교인분포를 조사하게 됐다”며 “전국 교회와 노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1차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 목회, 교회지원 절실

원목 70% 100만원 미만 사례비

A 선교사는 경기지역 중간규모 병원 원목 사역자로 활동하면서 턱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다. 수술을 앞둔 중환자 병실을 방문해 복음으로 마음의 불안함을 사라지게 하고, 회복실에선 불투명한 미래를 맞이한 환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기독교도인 환자들의 입원실에 찾아가 병실 예배, 일요일 성도들을 모아 드리는 주일예배 준비도 해야 한다. 바쁘게 하루가 돌아가고 매일 피곤함에 녹초가 되지만, 그가 받는 ‘월 사례비’는 100만원 남짓. 목회가 취직은 아니지만, 거의 ‘열정페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다.

병원선교 활동에 나서는 원목들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못한 경제적 곤경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원목 10명 가운데 7명이 100만원 미만의 ‘월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원목협회(이사장 유기성 목사)가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활동 중인 원목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월 사례비가 얼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6%가 ‘50만~100만원’이라고 답했고, ‘30만~50만원’이 19.2%, 30만원 미만 이 15.4%였다. 원목들의 월 사례비는 병원 측이 봉사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50만원 미만의 월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가 34.6%로, 4인 가족은커녕 성인 한 명도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처우를 받는 셈이다.

월 사례비로는 전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원목들은 생활비 상당 부분을 가족들로부터 보조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또는 자녀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60.4%에 달했으며, 연금과 저축(23.6%), 기초노령연금(8.5%), 사액이외의 부업(7.5%) 순이었다.

현재 국내의 300여개 병원에는 목사 전도사 등 목회자들이 원목으로 사역 중이며, 이들 대다수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계 병원이나 대형 병원 등에서는 원목에게 필요충분한 급여와 정식 직원 신분을 제공하지만, 나머지 중간 규모 이하의 병원에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실태조사에서 교단이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78.3%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이들의 경우 재정지원이 확실한 교단의 파송을 받았다는 원목은 7.8%에 불과했다. 병원 직원으로 등록됐다고 답한 사람도 9.8%였을 뿐이다. 나머지 파송자들은 군소 선교회의 파송인 셈이다. 또 파송 받은 게 아니

서울기독대 “신앙 정체성 불일치” 파면

손원영 교수 “부당한 정계에 법적 대응”

기독교 신자의 불상 훼손 사건을 대신 사과하고 보상을 위한 모금활동을 했던 기독교대 교수가 파면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기독대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신학전문대학원 손원영(52) 교수를 파면했다. 사건은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월 중순 기독교 교인인 60대 남성 A씨가 경북 김천 개운사에 들어가 ‘월은 미신이고 불상은 우상’이라며 불상과 법구 등을 마구 부숴댔다. 이 사건으로 개운사는 약 1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주지 등 승려와 신도들이 충격을 받았다.

소식을 접한 손 교수는 심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랑과 평화의 종교인 기독교가 어떻게 폭력과 증오의 종교로 변질될 수 있는가’ 등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불교계에 용서를 구하는 글을 남겼다. 또 몇몇 지인과 ‘법당 복구를 위한 모금활동’을 펼쳤다. 100여 명에게 260여만원을 모은 것이다.

그러자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회장 신조광 목사)는 교단 산하인 서울기독대 측에 손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이 대학 총동맹회도 손 교수의 모금활동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공식적인 손 교수의 파면사유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와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은 언행과 약속한 사항 불이행 등 성실성 위반’이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모금운동을 벌인 게 파면 결정의 주된 사유가 아니다”며 “여러 사안에서 건학이념을 지키지 않아 성실의 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강령 서울기독대 총장도 “손 교수의 해방주의신학이나 수정주

의신학은 스톤·캠벨 운동을 지향하는 서울기독대와 신학적으로 충돌한다”며 “학생들에게 자칫 신앙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선교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학교 측은 손 교수가 모금 사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해 이 총장에게 사과하고 각서를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 부당한 정계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운사를 도우려고 모금한 행동을 학교 측이 우상숭배 운운하며 저를 파면한 것”이라며 “학문의 전당이 자 양심의 보고인 대학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반(반) 헌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에 ‘종교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지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했다.

교도소 선교칼럼 (16)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새 삶을 주신 주님

메리는 서른살의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며 실패하자 다시 자살할 계획을 하곤 했습니다. 그 무렵 메리는 감방 안에서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가 출판한 책, “말고도 험한 길의 회상집, 미 육군 유격대 리키의 이야기”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리키는 육군 유격대원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유격대원으로 전쟁에서 싸웠던 쌍둥이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인으로 제대했을 때 그는 그의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빈털터리 노숙자가 되어 마약을 팔며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리키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일곱 살 난 딸아이를 전처의 남자친구가 납치해서 성폭행을 한 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살충동에 시달리며 죄책감과 악몽으로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시자 그는 완전히 치유되어 다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간증을 써서 깊은 상처로 인해 고통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메리 역시 그가 쓴 신앙 간증을 읽으므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리키의 치유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리키가 치유될 수 있다면 아무리 큰 상처를 가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리키의 간증책을 읽으며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가 겪은 아픔은 리키가 겪은 상실감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녀 역시도 이라크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동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특별히 가까운 동료가 그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거두게 된 일은 그녀에게 깊은 좌절감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5년 후 군에서 제대한 그녀는 마약에 찌들어 살며 반복적으로 교도소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그녀는 10년에서 20년형이 예상되자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리키의 간증은 마음에 놀라운 변화와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리키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 자신도 메리와 같이 이제까지 읽은 것 중 리키의 간증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리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치유를 주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의 글을 사용하시므로 읽는 이들이 그 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리키의 간증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메리가 감방 안에서 다른 여자 재소자들을 영적으로 돕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약으로 찌들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니 말입니다. 이제 메리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자 삶을 사랑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돕고자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회개 3편”에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변화프로젝트 문서선교를 통해 재소자들의 아픈 과거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치유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문서 선교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메리는 이제 밝은 웃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리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세계 선교 소식

중국, 한국계 미국인 목사 일행 중 3명 석방

중국 당국이 최근 연행한 한국계 미국인 목사 일행 중 3명이 11일 만에 풀려났다. 중국 내 한국선교사들은 21일 본보와 통화에서 “지난 9일 중국 지린성 옌지 호텔에서 투숙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목사 일행 4명 중 3명이 20일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밝혔다. 선교사들에 따르면 탈북민 구호에 힘쓴 이들은 한국계 미국인 박원철(60대) 목사와 중국인 김모(50대) 전도사, 중국인 손모(40대) 씨, 한국국적의 탈북민 김모(30대) 씨로 모두 남성 크리스천이다. 그러나 함께 체포됐던 김모 씨는 석방되

지 못하고 구류가 연장됐다. 선교사들은 중국 공안이 탈북민 출신인 김 씨에 대해 조사할 게 더 남아있어 구류를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선교사는 “석방된 기독교인 3명은 현재 서울로 이동 중”이라며 “당분간 기도원에 들어가 앞으로의 선교방향에 대해 의논하고 기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목사는 미국 시카고에 안디옥한인교회를 개척했고, 세계협력선교회(Global Assistance Partners)에서 미전도종족 코디네이터로 사역하고 있다. 박 목사는 최근 북한선교에 집중했다. 한 콘퍼런스에서 박 목사는 “북한성도 영진운

동’을 제안했다. ‘영진운동’은 교인들이 북한 미래 믿음의 식구들을 가족으로 입양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자는 운동이다. 중국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선교활동이나 탈북주민을 보호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체포된 이들은 순수한 선교 목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로 알려졌다. 교회는 중국정부가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정부의 이번 강경조치는 사드배치로 악화된 한·중 관계에 배경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한국인 선교사 17가정도 최근 중국에서 강제출국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한국선교사 수십명 추방...교계 대책은?

급박한 대규모 출국명령, 중국선교 ‘암흑기’ 오나

중국 지린성 일대에서 활동하던 한국 선교사 수십 명이 최근 불법 사역 혐의로 전원 출국 명령을 받으면서 중국 선교에 적신호가 켜졌다. 추방이 대규모로 급박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교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에 중국 정부의 강화된 종교정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중국선교의 위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교단체들은 사역을 다각화하고 파송교회는 추방 선교사에 대한 위로와 돌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대경 CGNTV 경영본부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남서울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린 위기관리포럼에서 “최근 중국의 한국선교사 추방 조치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일은 아니며 종교를 지배하려는 중국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화문화가 외래문화를 동화시킬

수는 있지만 외래문화가 중화문화를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같은 관점이 중국의 종교 정책 기저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2005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 사무조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종교 사무조례는 중국의 종교정책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 지난달 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 종교국장 회의에서는 새로운 종교조례를 시행하고 종교 업무의 법치화를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공포됐다. 종교를 이용한 국가안전 위협세력 원천봉쇄, 종교학교에 대한 관리 강화, 종교를 이용한 비즈니스 문제 척결 등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함 본부장은 “과거엔 촌민위원회, 거민위원회가 인민 정부의 종교사무 관리업무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삽입됐다. 이는 의미심장하다”며 “특히 중국의 체제 밖에 있는 가정교회는 박멸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서 가정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에겐 큰

모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의 대처 방안으로 추방 선교사에 대한 후원과 돌봄 시스템 가동, 신인 선교사 모집단체에서부터 맞춤형 중국 선교사 선발, 선교사 재배치 등을 주문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부(GMS)는 향후 대책으로 통신보안시스템 가동, 접근직화, 중요 자료의 별도 관리, 비상연락망의 주기적 교육 및 생활화 등의 조치를 준비 중이다. 김정한 GMS 훈련원장은 “선교단체들은 사태 파악과 총동 대응, 멤버 케어, 장기조치 등의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추방시 선교사 자녀들의 학교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송교회는 추방 선교사를 파송할 때처럼 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기동 새가나안교회 목사는 “추방이 됐다고 사역자의 소명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파송교회는 선교사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오해하고 심지어 후원도 끊고 있다”며 “파송교회는 추방 선교사에게 새로운 사역지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위로하고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日 모교예배당서 윤동주 탄생100주년 추모예배

한일 성도 400명 릿쿄대 채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합창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10대 학생들부터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까지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참석자들은 크리스천 시인 윤동주(1917-1945)가 즐겨 불렀던 찬송 ‘죄짐 맡은 우리구주’(찬송가 369장)를 한국어로 함께 불렀다. 75년 전 일본 도쿄 릿쿄대에 유학 온 윤동주가 찾곤 했던 바로 그 예배당에서 한국어로 울려 퍼지는 찬송은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감회로 다가왔다. 19일 오후 릿쿄대 채플.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 행사가 참석한 400명 가까운 한·일 성도와 시민들은 ‘윤동주’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추모예배에서는 재미동포 청년 밴드 ‘눈 오는 지도’가 윤동주의 시 ‘별 헤는 밤’에

곡조를 넣은 특송을 했다. 시와 음악으로 윤동주의 생애를 엮은 2부 공연에서는 재일교포 피아니스트 최선애씨와 일본인 첼리스트 와카사 아오토씨가 협연하는 가운데 일본 배우 니노미야씨와 릿쿄대 교목 김대원(대한성공회) 신부, 참석자들이 함께 한국어로 윤동주의 ‘서시’를 낭독했다. 유시경(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신부가 일본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예배와 공연 동영상에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거나 눈을 감은 채 감상에 젖은 참석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추모 행사에는 반세기 넘게 한국 문학을 연구한 오무라 마스오(84) 와세다대 명예교수도 자리를 지켰다. 그는 1985년 5월 중국 지린(吉林)성 룡징(龍井)의 교회 묘지에서 윤동주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 만에

그의 묘소를 찾아낸 주인공이다. 이날 행사는 ‘시인 윤동주를 기념하는 릿쿄회’가 주최했다. 제국주의 국가권력으로부터 핍박당하다 타국에서 옥사한 식민지 출신의 시인을 기리는 모임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10년 전 릿쿄대 교목이었던 유 신부가 여류 시인 아나기하라 야스코(71)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가 계기가 됐다. 유 신부는 윤동주 연구만 20년 넘게 이어가던 아나기하라씨의 정성과 함께 한·일 문화 예술인,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았다. 이어 윤동주의 고귀한 삶과 시를 기리며 한·일 양국이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여망을 담아 이 모임을 만들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유 신부는 특별한 제안도 곁들였다.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윤동주는 이곳에서 졸업 예배에 참석했을 겁니다. 하지만 첫 유학지인 릿쿄대에서도, 두 번째였던 도시샤대에서도 그는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면 어떻겠습니까.”



shalom의 교육학(15)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시립 대학교 교수)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

커리큘럼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커리큘럼이라는 말은 본래 라틴어 currere, “달린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흔히 이력서를 curriculum vitae(the course of one's life or career)라고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준비한 자신의 교육적 기술적 역사를 기록해놓은 서류를 말한다. 교육현장에서의 커리큘럼이라 함은 학습자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학습자들의 경험, 관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학습자들을 훈련, 필요한 지식, 내용,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종합적인 학습 계획(road map)을 말한다. 커리큘럼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 열두 정탐꾼을 보내 그들의 보고를 들은 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기억해보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일련의 계획을 커리큘럼이라 한다면 이후 40년간을 목적 없이 방황했던 시기가 바로 커리큘럼이 없는 시기요, 여호수아의 인도 하에 가나안에 들어가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48개 성읍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배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커리큘럼이 있던 시기였다. 커리큘럼이 있고 없고는 바로 이처럼 근본적인 실천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 왜 그런가?

커리큘럼은 왜 배워야 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교수 목표가 설정되고, 이의 달성을 위한 학습 내용과 활동이 구체적으로 선정되고 이러한 활동과 계획을 통하여 학습자가 교육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커리큘럼 이론의 선구자인 Ralph Tyler는 이미 1949년에 출간한 커리큘럼 고전에 해당하는 책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에서 커리큘럼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요소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이다.

즉 커리큘럼을 개발할 때, 먼저 커리큘럼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둘째, 이러한 목표와 관련된 아이들의 학습경험이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하고 셋째, 이러한 학습 경험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반적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학습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하였다.

성경이 말하는 커리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셨다. 사

수행하여야 할 커리큘럼을 제시하셨다.

예를 들면 모세 시대의 출애굽,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본토 귀환 등이다. 지금 이 시대의 공동체 커리큘럼은 무엇인가? 이는 흔히 말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필자는 이미 시대를 통합하는 갈등의 조정 능력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셋째, 성경은 점진적인 커리큘럼을 강조하고 있다. 평이한 것에서 난해한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출발하여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개인의 영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발달 순서에 입각하여 기획할 것을

초로 몇 가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늙은 남자는 절제, 경건, 신중,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이르도록 교육할 것. 나이든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게, 모함하지 않도록, 슬에 취하지 않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가르칠 것.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 하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칠 것. 젊은 남자들은 신중할 것을 권면하고 선한 일에 모범을 보이도록 하며, 부패하지 않고 말에 흠이 없도록 가르칠 것.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하고 흠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이 나타나도록 교육할 것 등이다.

발달 단계에 맞는 교회 커리큘럼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하여 교회교육에서의 발달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물론 각 교회나 교파가 지향하는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교사의 수준과 교회 리더의 목회 철학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윤곽은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William Yount는 Discippler's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or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성경엔 개인(창1:28), 공동체(화평), 점진적(벤허1:5-7), 맞춤형(딤후2:2-10) 커리큘럼 모두 있어

①성경 ②학습자의 발달과업 ③크리스천리더십을 발달단계별로 교육

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다.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히스토리 History)를 그려가는 커리큘럼이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커리큘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은 각자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따라야 할 개인적 커리큘럼을 주셨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는 커리큘럼을 주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목적에 따른 개인적 방향과 내용을 주신 것이다. 바로 교회와 기독교 교육은 이런 개인적 커리큘럼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것인가 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적인 커리큘럼이 각자에게 존재하듯이,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지향해야 할 공동체 커리큘럼이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부분 부분마다 믿음의 공동체(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신약에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다. 히브리서 5:13-14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 “이는 젓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결국 영적으로 덜 성숙한 자들은 아직 영적인 갓난아이이므로 이들에게는 기본 신앙의 지식을 가르치는데 주력하라는 말이다. 베드로후서 1:5-7에 역시 사도바울은 영적 성숙도를 고려한 커리큘럼을 설계할 것을 권면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벤허1:5-7). 결국 믿음의 성장 속도와 단계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각 사람에게 처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각 사람에게 맞춤형이 되는 커리큘럼을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해 교회에서 교육을 시킬 때 각 사람에 맞는 특수한 설계를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디도서 2:2-10을 기

model에서 기독교 교육의 바탕을 성경과 학습자의 요구라고 파악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 시대정신을 통찰하는 리더십을 포함하여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의 내용은 성경, 학습자의 발달 과정(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영역을 포함),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십 등의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각 발달단계별 커리큘럼을 논의해보자.

한편 인지발달을 연구한 피아제(Jean Piaget)는 이 시기를 감각운동기라고 부르고 이 시기는 시각, 청각 등 감각의 조절과 운동능력의 획득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단계라고 하였다. 결국 이 시기 교

육의 핵심은 부모들이다. 긍정적이고 아이들의 욕구를 시의 적절하게 채워주며 감각을 통한 아이들의 정서와 반응에 잘 대처함으로써 영아들은 낯선 세상에 대한 신뢰 혹은 불신을 배우며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 부모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모학 선생인 것이다.

넷째, 기쁜 두 살을 경험하게 하자. 아이들은 그들 스스로 보는 관점의 차이가 대략 두 살부터 생긴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게 될 때부터 그들은 보다 독립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고 이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한다. 자율성과 자의의식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할 때이다. 이때부터 간단한 말을 배우고 언어로 소통하는 법을 서서히 배우기 시작한다. “안해!” “물라” 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제법 자기의 고집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 이 시기를 미운 두 살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미국부모들은 이런 현상을 “예쁜 세 살”이라고 부른다. 관점의 차이이다.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제법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반드시 뼈뺀 관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때에 자아개념이 발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것을 보호하고 나와 관련되는 것을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서서히 발달하게 된다. 나아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설령 아이들이 잘못된 말을 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

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직관적, 감각적 판단력이 논리적 설명에 앞서므로 표현에 있어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모나 교사가 비록 아이들이 오류가 있더라도 기다려주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죄의식이 발전하는 시기라고 에릭슨은 주장한다.

그래서 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시기를 Little preacher의 시기라고 부른다. 언어적 주도성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하여 자신감 있는 생활습관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넷째, 초등학교 고학년이 들어오면 근면성의 시기이다. 에릭슨은 이 시기는 학교공부를 열심히 참여하며 학습동기를 높이는 시기라고 보았다. 피아제에 의하면 이 시기는 자기중심적 경향이 약화되어 문제에 대한 다각적, 논리적 접근이 가능해지는 시기이다. 그러기에 남을 배려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자각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때는 성품훈련에 주력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필자가 이 시기를 Character leader라고 부른 이유이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의 이기적 관점보다는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의 관점을 먼저 고려하고 생각하는 기독교적 윤리와 도덕성을 체득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중등학교 시기는 피아제에 따르면 아이들의 형식적 조작기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가설 및 추상적 문제에 대한 논리적 해결이 가능한 시기이다. 도덕적 철학적 사고가 일어나며 정치적 쟁점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성경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하며 성경말씀에 대한 욕구와 탐구욕이 왕성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보다 체계적인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통해 이 시기의 학생들이 성경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설계하여야 한다. 필자는 이 시기의 목표를 Bible scholar 라고 명명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시기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민과 통찰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장차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리더십, 방문,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나를 올바르게 찾아가도록 교회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한다.

(16면으로 계속)

2. 상담자의 기본상식

상담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상담자인 자신을 알고 내담자를 알아야 한다. 내담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불안과 긴장감을 해소하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위하여 기도로 시작한다.

둘째, 내담자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아내야 한다. 셋째,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도록 침착하게 지도해야 한다. 넷째, 잘 들어 줄 줄 아는 노련한 기술이 충고보다 값진 교육임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끌어올려야 하지만 지나친 동정이나 죄의 내용 자체를 공감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해답임을 인식시켜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 새 출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일곱째, 상대방을 동정하거나 그에게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말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문제를 말하다가 상대방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도움을 줄 수 없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며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도록 해야 한다.

3. 상담의 유익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이웃간에, 친척간에, 친구간에 서로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다. 이들에게 개인 상담을 해줌으로 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4. 상담 결과의 척도

상담을 마친 후에는 아래의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상담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해 본다.

첫째, 상담자로서 성의 있는 태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가? 둘째, 상담의 문제 핵심을 잘 파악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바른 인식을 갖게 했는가? 셋째, 상담자의 상담에 의해 내담자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으며 어떤 심적 변화를 일으켰는가

적 소그룹 성경공부'를 평신도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간다. 필자가 섬기던 라성세계복음교회에서는 성인교육부 주최로 주일예배 후에 온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북미 주개혁장로교단(C.R.C)에서 만든 'Coffee Break'라는 교재를 가지고 말씀공부를 하였다. 이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필자는 성경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더욱 말씀에 뿌리를 박는 믿음의 성장을 얻게 되었다.

2)사모가 소그룹에서 함께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사모가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 그룹의 성도들과 매 주일 정규적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같은 교회 안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인 교육부 주최로 실시되는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든 아무런 부담 없이 말씀 공부 후에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치유함과 성숙함을 경험하게 된다.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14)



이희숙 사모

여덟째,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선입감이나 치우친 감정을 가지지 말고 객관적인 감정으로 내담자를 대해야 한다. 아홉째,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곁여서 적용해야 한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은 죄가 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용서와 치유함과 자유함이 있음을 확신시켜 준다.

열째, 내담자와의 상담내용은 절대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한번은 남편 목사님과 상담을 한 어느 집사님이 "이 사건은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하고 자기 남편의 비밀을 목사님께 다 말했다. 후에 그분은 사모인 내가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줄 알고 필자의 의견을 물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의아해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남편 목사님께 왜 사모인 나에게 그 집사님의 사건을 말하지 않으셨냐고 했더니 목사님은 "아니, 그 집사님이 꼭 목사님만 알고계세요" 하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말할 수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난처해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내담자의 비밀은 부부사이라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 후에 성도들 사이에서 '이병희 목사님은 비밀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신뢰하며 상담에 임했다. 상담자가 비밀을 꼭 지켜준다는 신뢰가 있어야 내담자가 안심하고 상담하러 찾아온다. 열한 번째, 간절한 기도로 끝마무리하

...서로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다. 이들에게 개인 상담을 해줌으로 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를 분석해 보았는가?

넷째, 침착하고 겸손하게 친절하고 이해롭게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다섯째, 확실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섯째, 성령 하나님이 최상의 상담자임을 인식시켜 주고 내담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하도록 상담의 마무리를 은혜스럽게 이끌었는가? 일곱째, 내담자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는가?

이상의 몇 가지를 정리 분석해 보면 새로운 지혜가 떠오르고 더 성숙한 상담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모와 소그룹 성경공부

사모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빠른 길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공부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을 공부하다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사모 자신도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1. 사모 자신의 영적 성장

1)성경의 지식을 넓히게 된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과 달리 '귀납

3)적용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된다.

소그룹 성경공부의 중점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다. 배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꾸어 나가는데 있다 적용이 없는 성경공부는 자칫하면 평신도들의 머리만 커지게 해서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말씀을 공부한 후에는 한주 동안 함께 적용할 내용을 정해서 각자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각자 적용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4)사모가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자로 말씀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귀납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이 소그룹 성경공부는 인도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질문을 던져서 참석자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관찰하여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사모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인도자 준비모임에 참석하여 미리 준비 공부를 하여 소그룹을 인도하며 말씀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 좋다.

hslee39@sbcglobal.net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우리 하나님의 성음을 위하여!(삼하10:12-19)

본문은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을 치루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왜 싸우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성음을 지키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과 암몬 연합군은 왜 싸우는지 몰랐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목적이 없고 그냥 나와 있다가 순식간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분명한 목적을 가졌으면 이제 최선을 다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곳에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리라(삼하11:1)

본문은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한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지혜롭고 믿음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룰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둘째는 우리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러한 타락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먼저 성도는 성공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시험은 배고프고 어려울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때 시험이 없을 때 더 많은 유혹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 저택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삼하11:2)

어려울 때는 오히려 주님께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문제 하나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공하고 좋아질 때 좋은 집에서 편안히 거할 때 기도제목이 응답받고 시험이 없을 때 유혹은 더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전쟁의 마무리는 다윗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 모두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다윗은 편안히 왕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쉬자 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달려갈 길 다가가 주님을 얼굴로 보는 그 때가 아닙니까?

목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삼하11:2)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성도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시 같았으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낮 시간 뜨거울 때는 낮잠을 자거나 쉬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지붕위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아름답게 위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은 항상 내 눈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니까(삼하11:3)

바로 손에 잡히는 그곳에 선악과가 있듯이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물리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탐욕죄를 짓고 있습니다. 약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순간

정욕에 빠진 다윗은 그 안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37명 용사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평생 나라를 위해 충성한 신하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 더불어 동침하매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삼하11:4)

다윗은 자신과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신하의 부인을 탐하는 죄악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마음 안에서 정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 가지 큰 죄를 짓습니다. 먼저 왕의 권력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잘못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인데, "저가 그 부정한 것을 깨끗이 하고 더불어 동침했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순서가

바뀌어 "저가 더불어 동침한 후에 그 부정한 것을 깨끗이 했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도 누우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의식적인 정결에만 신경썼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즉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소그룹이 “성육신”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리더십저널, 선교적 교회되기 위한 마이클 프로스트의 실제적 대안 “성육신적 교회” 모델 소개

“선교적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공동체나 교인들 모두가 일상이나 직장에서 선교적 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선교적 교회” 또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에 머리는 이해가 돼도 실제 가슴으로 가는 또는 실제적 행동에 있어서는 실행되지 않아서 겪는 시행

착오들이 많다는 것이 일반 교인들이 기도 제목이다.

호주 몰링 칼리지의 부학장이자 부설 선교연구소인 틴슬리 연구소의 소장인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는 “선교적 삶”의 실재를 말해준다. 예수께서 행하신 성육신적 삶을 지금 여기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다.



그는 “성육신적 교회(Incarnate: The Body of Christ in an Age of Disengagement)”를 통해,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이원적 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현대 사회 자체가 점차 개개인으로 분열되고 타인과 거리를 두려 하는데,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의 위험성에 동참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는 사람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풍조가 있는데, 그는 이를 성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인 ‘탈육신’이라 명명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은혜를 유지해야 하는데, 교회가 현대 사회의 ‘탈육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이웃 사랑의 명령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지 않고, 그저 이웃 사랑의 가르침에

지역사회 일원으로 신앙의 기억과 전통 공유 권면, 용서, 정의, 목적 공유, 개혁이 있어야

동조를 표하는 정도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믿는 것이 현대사회 속 교회의 ‘탈육신’의 한 모습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지적인 동의만 표하고 가만히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 동의는 잘 모르는 사람도, 멀리 사는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령을 듣고 몸을 던져 실행하는 것은 잘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희생과 헌신의 현장으로 직접 자신의 몸을 던지는 공동체여야 한다. 성육신적 소그룹은 다음 여섯 원칙을 지키는 소그룹이다:

먼저, 소그룹이 속한 지역사회의 일원이어야 한다.

소그룹이 발 딛고 살아가는 지역에 대해 그 어떤 소속의식이 없다면, 역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에 그 어떤 복음적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 소그룹은 가능한 지역 기반이 있어야 하며, 그 지역에 실질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

둘째, 소그룹원들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과 전통이 공유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란 지켜야 할 규율이 아니라 반복해서 기념할 만한 영적 공감의 순간들을 뜻한다. 소그룹원의 세례와 입교, 훈련과 같은 영적 성장과 훈련의 순간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

고, 가능하면 출산과 생일 등 인생의 경조사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 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소그룹이어야 한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십과 상의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지만, 모든 책임을 ‘상급기관’에 떠미는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성경적 원칙이 명확히 제시돼 있고, 평소에 서로가 동의할 명확한 가르침이 공유돼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있어야만 성경적 권징의 순서에 따라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한두 사람이 먼저 조용히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불편해하고 그저 경조사만 챙기고 함께 활동하는 시간만 갖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나 친목회에 불과하다.

넷째는 정의가 소그룹의 목적이 돼야 한다.

이는 죄에 대한 인지와도 연결된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약자를 세워주는 것은 초대교회의 일관된 원칙이었다. 소그룹 역시 가장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함께 움직여야 한다.

다섯째는 목적을 계속해 공유하는 것이다.

리더십이나 핵심멤버들만 목적을 아는 것은 옳지 않다. 소그룹의 목적을 공유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의식적으로 가져야 한

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간다는 소그룹의 존재 목적이 처음 온 사람이나 오래 있던 멤버에게 모두 동일하게 인식돼야 한다. 또한, 그 목적이 더디더라도 계속 실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개혁돼야 한다.

개혁은 개개인의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도 이뤄지지만, 공동체의 개혁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일어난다. 존경해 마지않는 리더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음 리더에게 리더십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 소그룹이 함께 인식하고, 건강한 차기 리더십을 세우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때가 되었을 때, 리더십이 될 만한 소그룹원이 없는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누구나 상황과 장소에 따라 말씀을 나누고 모임을 인도할 만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

교회공동체에서 소그룹이 더 이상 개인의 신앙생활을 보조하는 임시적 도구로 여겨지지 않아야 한다. 소그룹이 내 신앙생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만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이탈해 새로운 소그룹을 선택하는 진열대 위의 상품이 돼서도 안된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공통의 목적을 공유해 이 땅, 이 시대에 함께 살아 숨쉬며 울고 웃고 피땀 흘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성육신적 소그룹이 돼야 한다.

이왕복 목사 운영 인터넷 “설교신문” 무료 개방

www.0691.in에 설교 30만편...예화, 유머 사이트도 있어

인터넷 설교신문을 운영하는 이왕복 목사가 뉴욕으로 이주, 미주 목회자들에게 1년간 무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오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왕복 목사는 15년 역사의 인터넷 설교신문(www.0691.in) 사이트에는 3만 명의 한국 목사들이 가입돼 있으며 설교 30만 편, 인터넷 예화신문(www.ccc3927.com)에는 6만 편의 예화가 주제별로 보관돼 있고, 인터넷 강단유머(www.8291.org)에는 격조 높은 유머 1만 편 이상이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본 사이트가 성구별, 주제별, 내용별, 사건별로 분류돼 있으며 검색이 쉽다고 설명했다.

즉 본문만 검색하면 같은 설교가 50-200편이 뜨고 주제성구만 검색해도 설교가 50-100편이 동시에 뜬다. 예화 주제어만 입력해도 관련 예화 수십 편이 나온다고.

목회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사이트는 현재 5명의 전문 목사들이 분야별로 1000여 교회 홈페이지에서 엄선된 설교와 예화 자료를 매주 2-300편씩 올리고 있으며, 이용도가 낮은 설교 50편 정도는 지우고 있는데, 같은 본문으로 다른 목회자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 설교하고 어떤 예화를 사용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설교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전국의 초교과 목회자들의 설교를 참고함으로써 더 은혜롭고 깊이 있는 설교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표절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을



이왕복 목사

보고 하면 표절이지만 10편을 보고 하면 아니다”라며 “설교는 창작하면 이단이다. 다른 설교를 참조해서 인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만든 설교 작성법도 사이트에 올라 있다고 소개했다.

이왕복 목사는 “한국에서는 1년에 8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며 미국에서도 50명이 가입돼 있다. 한국 행복교회회를 은퇴하고 이번에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미주 목회자들에게 1년 무료 공급한다. 사이트에 메시지를 남기면(예: 미주 크리스천신문에서 봤습니다) 즉시 오픈된다”고 말했다.

이왕복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총회신학대학교수, 생활전도훈련원장, 한국광사치유협회장, 웃음치유 전도대장, 요한선교회회장, 행복한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전도세미나 및 전도집회를 하면서 폭넓은 전도를 위한 실제적인 생활전도, 주부생활 전도, 파사의술전도 등 새로운 전도운동을 펼쳤다. 저서로는 “즐거운 생활전도” 등이 있다.

(유원정 기자)

살롬의 교육학

〈14면에서 계속〉

커리큘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그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배우지 못하는 것도 있다. 즉 의도하지 않은 배움의 결과를 흔히 교육학자들은 히든 커리큘럼(hidden curriculum)이라고 부른다. 이는 비록 명시적, 공식적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사와의 관계, 독특한 분위기, 혹은 자신만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교육커리큘럼을 잘 기획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길로 인도하는 커리큘럼을 실시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신30:16).

결국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저주와 사망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부모 세대에 그치지 않고 자녀 후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바로 커리큘럼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 후손들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할 것인가? 이를 위하여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계속〉

hlee0414@gmail.com